

13일 Market Index			
↓ 코스피	6806.93	↓ 코스닥	799.36
	(-669.01)		(-38.07)
↑ 금리 (우고재 3년)	3.809	↑ 환율 (원·달러)	1502.30
	(+0.041)		(+0.90)

수백조 공장 증설에도
HBM 수급 한계
최소 2년은 공급난
02



‘부동산 슈퍼워크’ 집값·세제 방향 잡는다

국토부, 오늘부터 정책 토론회

김윤덕 장관·전문가·시민 참여
내일 금융위, 모레 재정부 거쳐
23일 대통령주재 토론회 열어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에 앞서 국토교통부를 필두로 부동산 전반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연쇄 토론회가 14일 시작되면서 정책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주택 공급은 물론 금융, 세제 등을 모두 아우르는 만큼 이재명 정부의 향후 부동산 정책을 가늠할 수 있어서다. **〈관련기사 3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업계 전문가와 일반시민까지 토론에 참여한다. 이어 15일에는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토론회, 16일에는 재정경제 분야 부동산 세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마무리하는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다.

공급확대와 대출규제와 관련 논쟁이 격화되겠지만 가장 이목이 쏠릴 부분은 세제다. 당장 이달 말에서 8월 초계면 확정될 세제개편안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주요 쟁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미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적절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어느 정도 차이가 적정인지, 초고



코스피, 6800으로 ‘뚝’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669.01포인트(8.95%) 내린 6806.93으로 마감한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 처리할지, 추가 부담할 초고가주택은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쇄 토론회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자기 할 말만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정당화하는 ‘답장너 토론회’, ‘국민 혼계 토론회’가 될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징벌적 과세 빌드업하면서 결국 집 가진 국민에게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선동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집값 상승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는 도그마에 빠져서 민간 공급 확대를 막고 과도한 규제와 세금 인상 중심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7월 8초 세금폭탄 정당화를 위한 간 보기 작업이자 여론 빌드업에 불과

하다”고 말했다.

반면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정책의 ‘관객석’에서 ‘운전석’으로 모시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집단지성을 담아내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metro

“반도체 추가세수, AI 패권결정 할 골든타임 재원”

李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4대분야 투자 3대 메가프로젝트로 경제 새기회 청년 생애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초항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같은) 대규모 추가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대체불가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할 방안을 잘 챙겨 답아야 한다. 이를 위해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려 한다”며 추가 세수 활용 방안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

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미래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전에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겠다”며 “반도체, 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이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모두의 성장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

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사회 안전 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기술발전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일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이 경제 회복과 민생 위기의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의 1년은 작년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한 해가 되겠다”며 “2027년 예산안이 아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이다. 오늘 우리가 논의할 재정의 방향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결정하게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



metro

메트로 韓줄뉴스



▲송영길 “鄭 얼굴로 총선 이길 것 같나…명청대전 없다지만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 **〈사진 뉴시스〉**
▲추경호 “국회·부처 등 문턱 많도록 다니는 간절함 있어야”

▲“범부처 로봇 수요 발굴단 운영…연구용 시로봇 적극 구매”
▲박지원 “조국, 똑똑한 사람이 바보 같은 짓…지금 자숙할 때”

▲통영소방서, 하트세이버 인증서 수여식·유공자 도지사 표창
▲메디톡스, 의료진 대상 ‘맞춤시술법’ 학술 교육

수백조 공장증설에도 HBM 생산 한계… 최소 2년 이상 공급난

메모리 3社, 설비투자 경쟁 치열
신설 공장, 실제 생산까지 2년 소요
공급확대에도 가격하락 제한적 전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이 수백조원을 투입하는 사상 최대 증설 경쟁에도 메모리 반도체 공급난은 2028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설 공장이 실제 생산에 들어가기까지 최소 2년이 걸리고 고대역폭메모리(HBM)가 기존 D램보다 몇 배 많은 웨이퍼를 소모해 증설이 곧바로 공급 확대에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지난 4일 일본 히로시마 공장에서 1조5000억엔(약 14조원) 규모의 신규 제조동기공식을 열고 2028년부터 차세대 HBM을 생산하기로 했다. 미국 아이다호와 뉴욕 공장 건설을 포함해 2035년까지 미국 내 투자에 만 2500억달러(약 37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업단지 첫 공장 가동 목표를 당초 2031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앞당겼고 팹택 4공장(P4)은 계획보다 6개월 이른 연내 완공 가동에 들어간다. 지난달에는 정부 메가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팹택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총 2030조원을 투입하는 초장기 투자 청사진도 내놔다.

SK하이닉스는 나스닥 상장으로 조달



지난 9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분주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시스



SK하이닉스가 건설할 충북 청주시 신규 팹(Fab·공장) M15X 조감도.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건설 중인 뉴욕 메가 팹. /뉴스시스

한약 40조원을 용인 클러스터 1기 공장과 청주 첨단 패키징 공장에 투입하며 용인 1기는 내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메모리 3사의 증설 경쟁에도 공급 부족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과소정 SK하이닉스 사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나스닥 상장 당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공급 관점에서 내년은 업계 역사상 최악의 해가 될 것”이라며 공격적인 증설에도 메모리 수요가 2030년 이후까지 생산 능력을 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증권가의 시각도 비슷하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공급이 최소 내년 4분기까지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고 업황도 사이클상 중반에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메모리 가격이 3분기 40~50% 오른 뒤 2027년에도 상승세를

지속해 가격 안정은 2028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증설이 공급 확대에 이어지지 못하는 첫 번째 요인은 시간이다. 반도체 공장은 착공 후 건설과 장비 반입, 공정 검증, 수율 확보를 거쳐야 해 실제 생산까지 수년이 걸린다. 산재이 메트로트와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도 지난달 새 공장 건설에 오랜 기간이 걸리고 차세대 공정이 복잡해졌다는 점을 들어 공급난이 2027년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실제 마이크론은 중기적으로 고객 수요의 50~67%만 충족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3사가 현재 짓고 있는 공장의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는 시점은 빨라도 2027~2029년이라는 의미다.

두 번째 요인은 HBM의 생산 구조다. HBM은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 만드는 구조여서 같은 용량의 일반 D램보다 3~4

배 많은 웨이퍼를 소모한다. 미국 투자는 행 모건스탠리는 첨단 메모리 웨이퍼 생산능력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6%에서 2028년 34%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웨이퍼 생산능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수익성 높은 HBM에 물량이 쏠리면 그만큼 범용 D램과 낸드에 배정되는 몫이 줄어든다. 실제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달 PC용 범용 D램(D DR4 8Gb)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21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대만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AI 서버 수요가 메모리 생산능력을 잠식해 공급 부족과 비용 상승이 단기에 완회되기 어렵다며 올해 글로벌 노트북 출하량이 전년보다 13.6% 줄어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이 늘어도 과거와 같은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

온다. 빅테크 기업들이 메모리 제조사와 3~5년 단위의 장기공급계약(LTA)을 맺는 관행이 확산하면서 신규 물량 상당 부분이 공장 가동 전에 이미 선점되고 있어서다. 마이크론은 2030년까지 이어지는 전략적 고객 계약 16건을 체결했으며 이는 자사 D램 출하량의 약 20%, 낸드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확정 수요를 바탕으로 생산하는 주문형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증설 물량이 재고로 쌓이던 과거 증설 경쟁과 다른 형태를 보인다.

최대원 SK그룹 회장은 상장 당일 미국 CNBC 인터뷰에서 “향후 5년 안에 생산능력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도 모든 고객이 부족하다고 말한다”며 “우리의 공급 능력은 그 수요를 결코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유통업계, 오프라인 채널 활기… 수익개선 기대

관광객 증가·휴가철 특수 등 호재
백화점, 두 자릿수 이익 증가 전망

국내 주요 유통업체들의 올해 2분기 경영 실적이 업태별 호재에 힘입어 전반적인 개선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고물가와 내수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백화점 호조와 경쟁사 구조 조정에 따른 대형마트 반사이익, 편의점의 체질 개선이 맞물리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성적표가 예상된다.

13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유통업체들의 2분기 실적은 업태별 차별화가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은 이익 개선세가 예상되는 반면 면세점은 외국인 객단가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가장 두드러진 실적이 기대되는 곳은 백화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백화점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24.5% 증가하며 주요 유통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로 고소득층의 명품·패션 소비가 견조한 데다 원화 약세로 외국인 명품 수요가 면세점에서 백화점으로 이동한 영향이다. 실제 상반기 백화점 3사의 외국인 매출은 모두 5000억 원을 넘어섰으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8% 수준까지 확대됐다. 신세계백화점은 명품 경쟁력을 앞세워 가장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며 현대백화점과 롯데쇼핑도 의류 판매 호조와 감가상각비 감소 효과로 두 자릿수 이익 증가가 기대된다.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시스

대형마트는 홈플러스 구조조정의 반사이익이 본격화되고 있다.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 과정에서 부실 점포 영업을 중단하면서 고객 수요가 이마트와 롯데마트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가는 홈플러스 기존 매출의 약 30%만 흡수해도 이마트와 롯데쇼핑의 합산 매출이 1조4000억~1조5000억 원 늘고 영업이익도 약 36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마트는 최근 스타벅스를 둘러싼 논란으로 촉발된 불매 움직임이 단기 변수로 꼽힌다.

편의점도 회복세가 뚜렷하다. 외형 확대 경쟁에서 벗어나 우량 점포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5월 편의점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대형면세점이나 명동 중심에서 골목상권으로 확산되면서 편의점이 필수 쇼핑 코스로 자리 잡은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GS25와 CU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

된다.

반면 면세점은 방한 관광객 증가에도 객단가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5월 외국인 면세점 구매액은 전월 대비 3.0% 증가했지만 매출은 2.5% 감소했고 객단가도 5.3% 하락했다. 개별관광객(FIT) 증가와 소비 패턴 변화로 고가·대량 구매가 줄고 소액·분산 소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업계는 점포 효율화와 비용절감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수익성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회복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한상공회의소의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는 직전 분기보다 12포인트 상승한 92를 기록했다. 휴가철과 추석 특수, 외국인 관광객 증가 기대감으로 백화점과 편의점, 대형마트의 전망은 개선된 반면 해외 이커머스와 가격·배송 경쟁이 심화된 온라인 쇼핑은 여전히 기준치를 밑돌며 온·오프라인 간 허리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1585만5000명 청년층·제조업 ↓ 고령층·서비스업 ↑

고용노동부 6월 노동시장 동향
6개월 연속 20만명 후반대 증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6개월 연속 20만명 후반대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내수 부진의 여파로 청년층 가입자가 46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하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건설업의 동반 침체가 지속되는 등 고용시장 내부의 양극화 그늘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6년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8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만4000명(1.7%) 늘었다. 올해 1월 이후 6개월째 20만 명대의 성장세를 유지한 수치다. 그러나 산업별로는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보건복지(+11만 2,000명)와 숙박음식업 등이 포함된 서비스업 가입자가 27만9000명 늘어나며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월 200만 명대 수준으로 유입되면서 내수 산업이 활성화된 점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내수 가공업종 부진이 이어진 제조업은 전년 동월 대비 9000명 줄어듦에 전월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특히 자동차 제조와 화학제품 등에서 감소 폭이 커졌다. 3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건설업도 지난달 8000명 줄어듦에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도소매업 역시 대형마트의 잇따른 점포 부분 폐업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소폭 축소됐다.

가장 심각한 부문은 청년층 고용이다.

인적 속성별로 보면 29세 이하 청년층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6만 3000명 줄어듦에 2022년 9월 이후 46개월 연속 감소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이어갔다. 허리 세대인 40대 가입자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과 30대, 50대 가입자는 늘어 고령 중심의 고용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다만 정부는 청년층 가입자 감소의 상당 부분이 인구 감소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9세 이하 인구가 15만 2000명 감소한 영향을 받는 가운데, 청년층 가입자 감소 폭이 많이 완화되어 6만 명 감소는 거의 인구 감소분 정도라고 볼 수 있어 고용보험 상태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전체 취업자로 볼 때 청년층이 임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내몰리며 체감 고용 상황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최근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서도 점포 폐업에 따른 가입자 감소가 나타났다. 천 과장은 “홈플러스는 지난 해부터 점포 폐업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자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며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에도 수백명 단위의 소폭 감소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자리 안전망 지표인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고용센터 근무일수 증가(2일)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 증가한 9만 명을 기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반도체 고점론 덮친 코스피… 外人 50조 팔고 개미 14조 샀다

삼성 외국인 비중 17년 만에 최저
AI 낙관론과 반도체 고점론 엇갈려
중동 긴장에 국제금리·국제유가 ▲

주도주 다른 업종 이동 가능성 제기
소비재·운송·지역은행·바이오 지목
에너지·유틸리티 등 투자 대상 확대

코스피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반도체 고점 논란과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확대에 “지금 빠져나오지 않으면 발목이 잡히지는 않을까”하는 불안감 때문이다. 시장 변동성도 극심하다. 반도체주를 비롯한 주요 기업 주식이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매수·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래밍 매수·매도 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반복되고 있다. 외국인 들은 발을 빼고 있다. 7월 14조원여치를 포함해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163조130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팔아치웠다.

낙관론 진영은 “한국증시가 AI 관련 산업과 산업재 전반의 성장, 금융주의 자산 효과와 순이자마진(NIM) 개선, 기업 지배 구조 개혁에 따른 밸류에이션 상승 국면에 있다”라고 본다. 상당수 개인투자자도 이 의견에 동조해 7월 들어 13조2000억원여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중동발 물가 상승에 따른 고통이 이제 시작 국면이고, 하이퍼스케일러가 투자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하면 반도체 실적 기대도 함께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견해도 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이 의견에 가깝다.

◆반도체 고점, 외국인 ‘셀(sell) 반도체’
최근 주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반도체 고점 불안’을 언급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다시 지리한 3



ChatGPT로 생성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상징하는 깃발과 파란색 하락 그래프를 배경으로 반도체 업종 약세와 코스피 변동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년이 시작되는 것 같다”, “대폭락 전 마지막 기회. 절대 신용 매수 금지” 등이다.

개미들의 불안을 자극한 주범은 ‘메모리, 겨울이 오고 있다’며 한국 반도체주를 초도화시켰던 모건스탠리.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지난 6일(이하 현지 시각) 고객들에게 발송한 보고서에서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데이터센터 기업)가 투자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하면 반도체 실적 기대도 함께 낮아질 수 있다”며 “메타의 잉여 AI 컴퓨팅 용량 외부 판매 발표는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팔자’도 ‘셀 반도체’에 가깝다.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 비중은 46.59%(13일 기준)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닥친 지난 2009년 7월 23일(46.67%) 이후 약 17년 만에 가장 낮다. SK하이닉스 보유율은 49.87%다. 2023년 5월 19일(50.10%)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윌리엄 램 인베스코 아시아·신흥국 주식 공동운용책임자는 “올해 들어 삼성전자 비중을 60% 이상 줄이고 그 자금을 국내 비(非)기술주로 옮겼다”며 “그는 ‘고객 자산을 과도한 집중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 심화와 증설, 산업의 정상적인 순환을 고려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초과수익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확대도 반도체주 등 코스피에 부담을 주고 있다. 지난 주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했고, 이에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선물 시장에서 미 국제금리와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

다만, 생각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9일 기준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기수익비율(PER)은 6.35배로, 금융 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0월 26일 기록한 6.82배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13일 보도했다.

높은 구조적 변동성에도 코스피를 지탱하는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 기업이다. JP모건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해 ‘더 오래 지속되는(higher for longer)’ 사이클을 전망했다. 실제로 재정경제부 분석에 따르면 6월 29일 기준 D램(16GB) 현물가격은 45.16달러(약 7만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8.9% 올랐다. 게다가 가격 상승폭이 4월 말(605.8%), 5월 말(653.5%)에 비해 계속 커지고 있다.

◆소나기 피할 곳은 어디?

WSJ은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이 오징어 게임이 될 위험에 처했다”며 한국 증시의 변동성과 외국인 이탈을 지적했다. 이어 “인구 5100만명의 한국에서 개인이 얼마나 더 베풀 수 있는지의 의문”이라며 “파티가 끝나면 손실은 대부분 현지 개인 투자자에게 남을 수 있다”고 지난 6일(현지 시간) 보도하기도 했다.

‘개미’(개인투자자)들은 불안하다.

2000년의 아픈 기억 때문이다. 2020년 말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유입 속에 전개된 코로나 불장 당시 삼성전자는 9만 6800원까지 치솟은 뒤 급락해 10개월간 6만원대까지 밀렸다. 이후 수년간 5만~8만원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며 ‘물린 개미’의 상징이 됐다.

반도체주 급락에 반대매매 공포도 확산한다. 이달 들어(7월 1~10일, 8거래일 기준) 하루 평균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532억3000만원에 달한다.

시장전문가들은 코스피 앞날이 중동전쟁보다 AI에 달려 있다고 본다. 반도체 전문가로 유명한 김동원 KB증권 리서치 본부장은 “최근 AI 우려는 소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AI 적용분야 다변화로 150배 성장할 전망”이라면서 “AI에 이진트 확산은 메모리 수요를 3배, 자율주행은 5배, 로보틱스는 10배 이상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하반기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 여력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나기를 피할 곳은 없을까. 모건스탠리는 “최근 반도체주 급락은 시장 주도주가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는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장의 투자가 AI 관련주에서 여타 업종으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수혜를 입을 업종으로 소비재와 운송, 지역 은행, 바이오를 지목했다.

글로벌 운용사들은 AI 수혜주는 유지하면서도 포트폴리오의 편중 위험을 줄이는 전략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JP모건 자산운용과 GMO, 인베스코 등은 인도와 중국, 게임, 에너지, 유틸리티, 소비재 등으로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고가주택 보유세 강화 초읽기… 실거주·비거주 차등 과세

재경부 주관 16일 세제 토론회
초고가주택 기준·세율 조정 논의
거래세보다 보유세 비중 확대 추진
3~4주 뒤 세제개편안에 방향 담겨

정부와 고가주택 소유자 간 결전의 시간이 왔다. 정부는 그간 보유세 강화를 검토해 왔고, 정책방향은 세부 방안을 다듬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재정경제부가 3~4주쯤 후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이재명 정부의 보유세 부과 정책이 담긴다.

기존 거래세(양도소득세 등) 대비 보유세 비중을 상대적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비싼 가격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실제 거주는 하지 않을 시 세 부담을 크게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불어나는 세 부담에 고가주택 매물이 쏟아질지, 아니면 세 부담 상쇄 목적으로 집값을 더 올리는 소유자만 양산할지 주목되는 시점에 왔다. 2000년대 들어 각 정권별 일련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다주택자 등이 버티기로 일관해 집거리가 잠기는 역효과도 더러 생겨난 바 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뉜다. 재산세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 부동산에 부과한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가격을 초과해 주택 등을 보유 중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 주변 아파트 단지.

/뉴시스

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추가로 매기는 세금이다.

당장 이달 16일로 잡힌 재경부 주관의 ‘부동산 세제 토론회’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토론회의 주된 의제는 보유세 강화이다. 이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보유세 관련해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의제를 직접 제시했다. ▲보유세의 적정 수준 ▲실거주 주택과 비거주 주택 간 차등과세 ▲초고가 실거주 주택의 별도 과세 여부 ▲초고가 주택 기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활용 방안 등 여섯 가지다.

재경부는 투기 억제에 위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려면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금액대 하한 등을 어디로 설정하고 보유세 부과를 늘려 갈 것인지가 시작점이다. 이에 최근의 주택가격 동향을 살피는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1차 관건은 금액대 등의 기준 설정이다. 현재 1주택자는 소유 주택의 공시가가 12억 원 미만이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공시가격도 함께 뛰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증가하고 있다.

기준 설정 이후엔 초고가 아파트에 보

유 부담을 가중하는 동시에, 양도차익도 더 무겁게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담보대출 등을 통해 집을 어렵게 매입한 실거주 서민 등의 세 부담은 크게 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분석 중이다.

또 양도소득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도 선택지로 뒀다. 이는 비거주 주택의 경우 가급적 빨리 팔는 게 유리하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두 가지(거래세와 보유세)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집은 매입이 아닌 거주라는 원칙하에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세제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국민의 견수령 및 현장 목소리 반영에 따라 최종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달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중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이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 1면 ‘부동산 위크…’서 계속

고강도 규제에도 집값 다시 ‘들쭉’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접수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토론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고강도 규제에도 집값은 다시 들쭉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올해 들어 지난 6일 기준 1.76% 상승했다. 전년 동기 마이너스(-)에서 상승 전환한 것은 물론 상승폭도 크다. 특히 수도권은 3.44% 올라 전년 동기(0.96%) 대비 상승세가 가팔라졌으며, 서울은 5.42%나 상승했다. 경기도 화성 동탄이 14.46%나 급등했으며, 용인 수지(10.20%)도 상승률이 10%를 웃돌았다.

지난해 10·15대책 당시 풍선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구리시,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한은, 기준금리 인상 무게추… 美 물가·워시 발언 ‘주목’

오는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관건은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
고물가·원화약세 등 변수 동시다발

7월 기준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시장의 시선이 ‘인상 여부’에서 ‘추가 인상 경로’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 소비자물가와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첫 의회 증언이 원·달러 환율과 국내 물가 기대를 자극할 경우 신현송 체제 한국은행의 긴축 신호는 더 강해질 수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통위가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p) 올릴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인상이 결정되면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이다.

이번 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7월 인상 자체보다 이후 경로다. 기준금리 2.75%가 이번 긴축의 종착점인지, 연 3.00%를 향한 중간 지점인지에 따라 채권금리와 환율, 주식시장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월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내수 부담과 대외 불확실성을 강조하면 시장은 이를 일회성 조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반대로 물가, 환율,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을 강하게 언급하면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은 더 커진다.

금리 인상 명분은 이미 상당 부분 쌓였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2% 올라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웃돌았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2.5%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이 3%대에 머무는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장 모멘텀이 개선되고,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 불안도 다시 통화정책 판단 변수로 부상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도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한은의 판단이 국내 변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은 금통위에 앞서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워시 의장의 의회 증언이 예정돼 있다. 미국 CPI는 한국시간으로 14일 밤 발

표된다.

같은 날 워시 의장은 하원에서 취임 후 첫 통화정책 증언에 나선다. 통상 절차대로라면 15일 상원 증언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은 금통위 직전 미국 물가와 연준의 정책 메시지가 연달아 나오는 셈이다.

미국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연준의 긴축 경계감은 다시 커질 수 있다. 이는 미 국채금리와 달러를 밀어 올리고, 원화 약세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원화 약세가 수입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한은은 7월 이후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닫기 어려워진다. 반대로 미국 물가가 둔화되고 워시 의장이 신중한 정책 운영을 강조하면 한은도 7월 인상 이후 속도 조절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워시 의장의 발언 수위도 중요하다. 워시 의장은 취임 이후 공개 발언을 아끼고 시장과의 거리두기를 이어왔다. 그만큼 이번 의회 증언은 워시 체제 연준의 통화정책 반응합수를 확인하는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물가 안정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 달러 강세와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고, 경기 불확실성을 함께 강조하면 시장은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

성을 낮춰 볼 수 있다.

한은은 목표를 웃도는 물가와 성장 개선, 원화 약세, 수도권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동시에 봐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금리 인상이 환율 방어만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지만, 환율 변동성은 통화정책 부담을 키우는 변수로 올라섰다. 특히 원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수입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을 통해 물가 안정 경로를 흔들 수 있다.

금통위 당일 시장 반응은 기준금리 결정 자체보다 의결문 문구와 신 총재의 기자간담회 발언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시장이 더 주목하는 것은 7월의 0.25%p가 아니라 그다음이다. 미국 물가와 워시 의장의 발언, 원화 흐름에 따라 한은의 기준금리 경로는 2.75%에서 멈출 수도, 3.00%를 향해 다시 열릴 수도 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7월을 포함해 연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의 관심은 추가 인상 시기로 7월과 8월 연속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삼성 노조 84%,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반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입장문
내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서 다룰 것

4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가 노사 교섭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을 근거로 내년 임금·단체협약 교섭 의제에 반영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13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라며 “2027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관련 내용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노조가 문제 삼는 핵심은 투자 자체보다 향후 인력 운영이다. 삼성전자의 주요 반도체 생산시설은 경기 기흥·화성·평택

과 충남 온양에 집중돼 있다. 광주 신규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기동 과정에서 기존 사업장 인력의 전환배치가 이뤄질 경우 근무지와 주거, 통근,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개정 노조법을 교섭 요구의 근거로 제시했다.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실제 교섭 과정에서 투쟁 결정 자체보다 전환배치와 근무지 변경, 처우 등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발생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도 해석지침에서 사업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앞서 정부와 기업,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영현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장(부회장)이 원전 확대와 LNG(액화천연가스) 열병합발전 필요성을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사측도 사업 추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삼성전자가 호남 투자 계획에 반대하거나 재검토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 노조가 언급한 사측 발언 역시 노조 측 설명이다. 전 부회장의 당시 발언도 투자 계획 자체보다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을 위한 전력·용수 등 기반 인프라 지원 필요성을 정부에 요청한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달 광주에 약 400조원을 투자해 신규 팹 2기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은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광주 신규 팹의 착공 시기와 인력 운영 계획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이찬진 “운용사 ETF 과장광고 매우 엄중”

(금융감독원장)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국내 ETF 시장이 급성장하며 자산운용사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운용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향해 의결권 행사 내실화와 ETF 과장광고 근절,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투자자를 대신해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성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과 20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가 참석한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열고 올해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주주권 행사 체계 점검 결과와 자본시장 현안을 논의했다.

올해 수탁자책임 이행 수준 높아져 의결권 행사, 내부통제 강화 강조
모험자본 공급 통해 선순환 정착 기여

이 원장은 “최근 ETF가 대표적인 간접투자 상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자산운용사의 역할과 책임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운용사는 투자자를 대신해 자산을 운용하는 청지기로서 신인의무(Fiduciary Duty)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의결권 행사뿐 아니라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한 결과, 공·사모펀드의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이 개선되는 등 업계 전반의 수탁자책임 이행 수준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상당수 운용사에서 ‘복사·붙여넣기’식의 의결권 공시가 이뤄지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점검 대상 285개사 가운데 121개사는 절반 이상의 의결권 행사에서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 형식적인 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원장은 “펀드 의결권 행사와 공시는



운용사가 투자자의 대리인으로서 피투자회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중요한 창구”라며 “투자자와 실질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정책과 공시 체계를 내실 있게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업무의 실질적인 변화는 적절한 조직 구성과 합당한 성과 보상에서 나온다”며 “전담조직과 수탁자책임위원회, KPI 등 내부통제 체계를 갖춘 운용사일수록 주주활동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내 연기금의 위탁운용사 평가에서도 수탁자책임 활동 비중이 확대되는 만큼 CEO들이 직접 내부통제 체계를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ETF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경고도 내렸다. 이 원장은 “투자자는 ETF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운용사 광고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거짓·과장광고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광고 제작과 자체 심의 과정에서 정확한 투자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고 LP 증권사와 함께 괴리율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자산운용사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자산운용사가 유망 기업을 발굴해 투자자금을 공급하고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에게 분배함으로써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 이후 7~8월 중 공·사모 운용사를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와 공시 관련 설명회를 열고 점검 기준과 결과, 모범·미흡 사례 등을 공유하며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metro

홈플러스, 전국 대형마트 점포 영업 중단

오는 20일까지 운영자금 상황 따라
회생절차 연장, 영업재개 여부 결정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운영자금 부족으로 결국 전국 대형마트 영업을 잠정 중단한다.

13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부터 본사와 전국 대형마트 매장의 영업을 임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일 서울 회생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오는 20일까지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제출할 경우 회생절차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메리츠 측에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재차 요청했지만 아직 수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대금 지급은 물론 유틸리티 비용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보안과 안전 유지를 위해 13일부터 상황 변화가 있을 때까지 본사와 대형마트 매장을 임시 휴업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필몰(몰) 부문은 입점 점주가 영업을 희망할 경우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회사는 입점 매장 영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



문을 닫은 서울 중랑구 홈플러스 면목점 모습. /뉴시스

겠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오는 20일까지 운영자금 확보 진행 상황과 법원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 뒤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

1960년대 한 기업가의 말입니다

저망고희망은
르르의의
도저이아티며이다
은의표짓는이다
소비다디집트
는바각귀브스
저망고희망으로
르르의의로
바글수있다

전당대회 코앞인데 룰 미정... 선호투표 놓고 민주당 균열

친명계, 일부 위원 자격 문제 제기
친정청계 “특정 계파에 유리한 룰”
최고위원 사퇴 거론하며 정면 충돌

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준비에 가장 기본적인 당 대표 선출 방식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계파 간 유불리에 따른 반발 탓이다.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후보 등록일은 오는 16~17일로, 민주당은 최고위 등에서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한 쪽의 통 큰 양보가 나오지 않는 이상 원만한 당 대표 선출 방식 확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1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최고위에 당헌·당규 위배 소지가 없다고 보고한 당 대표 선출 방식인 ‘선호투표’ 도입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최고위에선 ‘당대표 선거는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실시하는 결선투표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준위가 정해 최고위와 당무위의 의결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당규 제66조 문구 중 ‘결선투표’를 ‘결선투표 또는 선호투표’로 변경하는 당규 개정안이 올라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득구 최고위원,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황 최고위원, 이성운 최고위원. /뉴시스

온 것으로 전해졌다.

선호투표는 3인 이상 경선 시 최하위득표자의 2순위 표를 각각의 후보에게 가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호투표도 결선투표의 일환인데, 결선투표가 투표를 2차례 하는 대신 선호투표는 1번의 투표로 결정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거리가 가까운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이 출마한 상황에서 2순위 표가 ‘친명계’ 후보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최고위 정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오로지 선호투표라는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에 따라 모든 일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후보 등록까지) 3일 시간을 남겨놓고 당헌·당규까지 개정

하자는 것은 어느 팀에서 요구하는 제도를 고착시키기 위한, 쟁취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반발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 7명 중 과반이 넘는 4명(문정복·이성운·박규환·박지원 최고위원)은 친청(친정청계)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최고위에서 표결에 부쳐도 의결이 어렵다.

전준위나 친명(친이재명계)계는 선호투표 역시 당규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친명계는 정청래 지도부에서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박지원 최고위원과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박규환 최고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의 명분은 박지원 최고위원은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으니 평당원 최고위원의 자격

이 없다는 것이고, 박규환 최고위원은 자신을 지명한 정청래 전 대표가 물러났으니 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이다. 친명계에선 최고위원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이성운 최고위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치권에선 현 지도부에서 수적 우세를 점한 친청계를 흔들려는 시도로 분석하고 있다. 전체 지도부 정원 9명 중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이 물러난다면 최고위 전체정수 9명의 과반이 무너져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친청계이자 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한 최민희 의원은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제 입장은, 룰은 모두가 승복해야 하는데 최고위가 저렇게 갈리는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을까”라며 “이 시기 어떤 방식으로 잘 결정하느냐가 또한 최고위의 역량”이라고 했다.

친명계이자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박성준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현 상황) 전당대회 자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가라앉게 만들고 있다”며 “지도부에서 누구의 대리전을 펼치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않나. 왜 그런 식으로 최고위가 운영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고민정 최고위원의 경우 당이 전대 룰을 두고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계파 간 싸울 것이 아니라 민생과 개혁을 위한 미래 비전을 당원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선호투표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거 가지고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 일인가”라며 “국민들 입장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차라리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하자, 일자리 어떻게 하자’ 이런 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국민들이 ‘그래도 뭔가 대한민국이 역동성이 있네’하고 박수라도 칠 텐데 지금 모습은 너무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법사위, 野 불참 속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예외 규정 담은 개정안도 발의 예정
국힘,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다. 다음 회의에선 법무부·검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책임자를 불러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날 1소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3건에 대한 병합심사를 진행했다.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심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며 “절반 정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소위에는 법무부뿐 아니라 경찰청과 공수처 책임자를 불러서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소위는 단순히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만을 (논의) 하는 게 아니라 국민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또 고소·고발인, 피해자, 피고소인 피고발인 사건 관계자들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억울함이 없는 형사 사법 체계 전반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사, 영장, 기소단계에서 외부 통제가 적절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다 포함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밖에서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에 들어와서 70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큰 일에 함께 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김승원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를 골자로 한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발의안,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병합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은 폐지하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4일 발의하기로 하면서 법사위 심사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홍기원 의원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결정해 주시면 다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직회부를 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논의 과정에 이계 합리적인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저도 개정안 발의를 통해 논의 과정에 포함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소위는 1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논의해 전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이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1년

늦추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개정안과 검사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이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부분에서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보완 방안 중 기소든 불기소든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권송치제’를 포함한 몇 건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소법 중에 작년에 당론으로 발의하기도 했지만,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을 없애는 것도 포함하기로 했고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 등 중대 범죄에 있어서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의의 후에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도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다”고 부연했다.

곽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이 불응한다거나 시정조치가 이행이 안 됐을 경우, 징계 요구에 대해서 징계 의결 시한까지 못 박아서 징계요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예진·박태홍 기자 syj@

정청래 “다시 강력한 개혁 당대표 되겠다”

당권 재도전 공식화

정청래 전 대표(사진)가 13일 “다시 한번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며 당 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 정 전 대표는 앞으로의 과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23대 총선 승리, 22대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재창출이라면서 “총선에서 승리해야 대선에서 승리한다. 정권을 재창출해야 국가 발전도 국민 행복도 한반도 평화도 지속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당정청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명청대전(이재명 대통령과 정 전 대표 사이 갈등)설’을 일축한 것이다.

특히 정 전 대표는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대선 승리의 기복자가 되겠다. 당을 공명정대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이 민주당을 이끌며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을 이끌었고, 당원주권정당의 기반이 되는 ‘1인1표제’를 도입했던 점을 소개했다. 또한 당 대표 시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무산된 것을 지적하며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한은 강력한 반대로 실패했다. 합당 의견을 묻는 전당원투표를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며 “당원들께 죄송했다. 당 대표가 되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한 의견을 전당원투표로 묻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李 대통령, 오늘 영국 앤 공주 접견

한·영 전략적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여동생인 앤 공주를 만난다. 앤 공주는 13일부터 15일까지 남편 팀 로렌스 경과 한국을 방문한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앤 공주는 14일 접견을 통해 한·영 간의 우호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앤 공주의 방한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IOC 위원 자격으로 방한한 지 8년 만이다.

청와대는 “이번 접견을 통해 글로벌 전략 동반자인 한·영 간 고위급 교류, 교역 및 투자,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



앤 공주가 지난 2018년 2월 8일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 그린피어 호텔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시스

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과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2026년 SK의 생각입니다

AI시대불안과기대는
도저히아무리
은니표짓는이다
소비다디치트
노아구구비스
불안은기대로
비관수이다

SK는 긍정의 힘으로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벤처·기업투자 ‘규제 완급’… 은행권,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부, 첨단산업·지방경제 투자 등 중점 전략분야 250조 자금 편성
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주담대 비특 부동산대출 규제 강화
대기업 편중 대출 포트폴리오 과제

부동산과 가계대출 등 부가가치가 낮은 분야에 쏠린 금융자금을 벤처·첨단산업 등 부가가치가 큰 산업으로 재배치하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이 출범 10개월을 앞뒀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벤처 기업 투자 시 위험가중치를 완화하는 등 ‘규제 완급’을 앞세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은행권의 자금흐름도 기업금융 분야로 대거 이동했다.

◆ ‘생산적금융’ 10개월…기업대출 ↑

정부는 지난해 9월 장기간 계속되는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정책 목표를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등 부가가치가 낮은 대출에 집중된 금융권 자금을 잠재적 가치가 높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성장한계를 맞은 지방기업으로 재배치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 목표의 달성을 위해 ‘규제 완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도가 높은 벤처 분야를 비롯해 기업에 대출을 공급하는 경우 위험가중치(RWA)를 낮춰 같은 자금으로도 더 많은 대출



주요 은행 대부분 올 상반기 생산적금융 목표치를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ATM기. /뉴시스

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주담대를 비롯한 부동산 대출 영역에서는 건전성 규제를 강화했으며, 가계대출의 연간 증가치도 제한했다.

정부는 또한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첨단산업·지방경제 등 중점 전략분야에 투자하도록 250조원 규모의 자금을 편성했다. 민간 금융권에서 자금을 출자하고 정부가 후순위투자자로 참여해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국민성장펀드’도 150조원 규모로 조성했다.

은행권 자금은 빠르게 이동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상반기 말 기업대출 잔액은 873조 845억원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6개월 만에 28조3591억원 늘었다. 작년 상반기

기업대출 증가분인 9조1158억원과 비교해선 3배 이상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5대은행의 가계대출은 7조2571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지난해 상반기 증가분인 20조6998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 기업대출 증가에 은행 수익성 ↑

은행들이 정부의 생산적 금융 목표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수익성 측면도 있다. 은행의 기업대출은 주담대 등 저위험 가계대출과 비교해 금리가 높게 설정된다. 특히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가계대출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각 은행들은 이자수익 극대화를 위해 기업대출 공급을 늘린 모습이다.

기업고객은 외환거래나 임직원의 급여

이체, 퇴직연금 운용 등 여·수신 업무를 제외한 금융서비스 이용률도 개인 고객보다 높다. 특히 각 은행들은 장기 거래 기업에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신규 대출 유치 시에는 장기간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대출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국내 주요 은행의 실적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1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금융투자사들이 추정하는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상반기 순이익은 11조601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5.6% 증가한 수준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전문가들은 은행 계열사의 대출 수익성 개선이 실적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 ‘대기업 편중’·‘건전성’ 과제

은행권의 실적은 개선됐지만 대기업에 편중된 대출 포트폴리오는 과제로 남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액은 5조1000억원이다. 대기업 대출 증가분이 3조7000억원, 중소기업 대출 증가분이 1조4000억원을 차지했다. 은행권의 기업대출 잔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인 것을 고려하면, 은행권의 신규 대출 대부분이 대기업으로 쏠리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 대출로의 쏠림이 발생하는 이유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어진 영향이 크다. ‘생산적 금융’을 통해 금융권에서 대규모의 자금

이 조성됐지만, 업황이 좋고 전망이 밝은 반도체·AI 등 전략산업에 자금이 우선 투입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벤처기업 및 지역산업 영역에도 자금 투자를 유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출로 투자되는 은행권 자금은 다소 제한적이다.

장기간 이어진 경기침체로 가파르게 상승한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도 과제로 남았다. 지난 5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73%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인 0.09%의 8배 이상이다. 특히 같은 기간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연체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은행권에서도 중소기업 대출의 문턱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상환능력이 확실한 장기 거래 기업·우량 기업에만 대출을 내주면서,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의 대출 수요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제3금융권으로 밀려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연체율 상승은 곧 충당금 부담 증가와 대출 공급 축소로 이어지는 만큼, 연체율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은행권이 무턱대고 중소기업 대출 공급을 늘릴 수는 없다”면서 “은행과 제2금융권 계열사 간 연계대출을 확대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공급 규모가 다소 제한적인 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우선 공급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카드사, 카드론 역대 최대 찍고도 수익 뒷걸음질

중금리 대출 확대, 카드론금리 하락
카드사 8곳 1분기 카드론 수익 1.3조
전분기 비 156억, 전년비 164억 줄어

카드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들의 카드론 수익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이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카드론 평균 금리가 하락하면서다. 최근 여신전문채권 조달 비용이 상승한 것까지 고려하면 카드사들의 카드론 관련 순수익은 더 줄어들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의 지난 1분기 카드론 수익은 1조3079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 대비 156억원, 전년

동기 대비 164억원 줄었다.

사별로 살펴보면, 신한카드가 약 61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어 롯데카드 28억원, 우리카드 24억원, KB국민카드 1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하나카드와 삼성카드는 약 12억원, 현대카드는 7억원가량 감소했다.

카드론 잔액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흐름이다. 지난 1분기 카드론 잔액을 살펴보면 1월 42조 5850억원, 2월 42조 9022억원으로 지속증가하다 3월 42조 9942억원을 기록, 당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지난 5월 43조를 넘어서며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카드론 잔액 증가와 카드사의 카드론 수익이 엇박자를 내는 배경으로는 중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확대 기조가 꼽힌다. 당국의 포용 금융 일환으로 중금리 대출 공급을 늘렸으나 중금리 대출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다 보니 마진이 남지 않았다는 것.

특히, 금융당국이 중금리 대출 확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카드사들의 중금리 대출 확대 기조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국은 카드사에 중금리 대출 취급분의 80%만 가계 대출 규제 총량에 반영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중금리 대출 자체의 금리가 낮아 대출 외형만 커지고, 카드사 수익성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그간 중금리 대출을 많이 늘려왔다”며 “중금리 대

출이 기본적으로 금리가 싸다보니 그에 따른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론 전체 평균 금리가 감소하는 추세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지난 1월 13.63%에서 2월 13.39%로 0.24%포인트(p) 하락했다. 3월과 4월에는 다시 상승세를 보였으나 5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편, 카드사들의 순수익은 통계보다 더 크게 줄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단순 카드론 수익은 비용을 제외하지 않은 수치”라며 “최근 여신채 조달 비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비용까지 고려하게 되면 카드사들의 순수익이 더 떨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산은·수은 등 국책은행 경영실적 평가

금융위, A~E 총 6개 등급 나눠
결과 성과급·내년 예산에 반영

금융당국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임직원 성과급 지급뿐 아니라 다음 연도 예산과 정원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경영평가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지난 2007년부터 국책은행

등 소관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진행해 왔다. 평가결과는 최고등급인 S(탁월)과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총 6개 등급으로 매겨진다.

경영평가는 지난해 해당 기업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평가등급에 따라 기관장 평가와 임직원 성과급이 정해지는 데다 다음해 예산·정원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당 기관 입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최고등급인 S등급의 경우 기본급의 200%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고, A등급(기본급 180%) B등급(기본급 150%) C등급(기본급 110%)으로 나뉜다.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D와 E등급은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번 평가에서는 직전 경영평가에서 처음으로 B등급을 받은 기업은행의 성적표에 이목이 쏠린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초 전·현직 임직원이 연두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퇴직 직원이 배우자와 친분이 있는 임직원 등을 통해 7년간 부당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이 같은 사고를 감안해 기업은행은 경영실적평가의 내부통제 부문에서 감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는 안전관리 부문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은은 재정경제부의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심사’에서 4등급인 ‘미흡’을 받았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작업장과 건설 현장 등 안전관리가 중요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안전관리 역량과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발주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등도 평가 대상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하나은행 해외송금 더욱 빠르게 ‘페스트 핏 송금서비스’

하나은행은 13일 해외송금 손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송금을 더 빠르고 투명하게 보낼 수 있는 ‘페스트 핏(Fast-Fit) 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

‘Fast-Fit 송금 서비스’는 그동안 해외 송금의 불편함으로 지적됐던 ▲장시간 입금 소요시간 ▲최종 수취금액 확인의 불분명함 ▲송금 진행상태 확인 어려움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서비스다.

송금을 보내기 전에 수수료와 수취인이 받을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송금 후에는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스위프트(Swift) 송금망의 개선된 결제방식인 ‘리테일 페이먼트 스킴(Retail Payments Scheme)’을 활용한 국가 간 지급결제 서비스로, 지난 6월 글로벌 주요 은행들이 참여해 10개국 26개 은행에서 우선 시행됐다.

하나은행은 국내 은행 중 유일하게 해당 서비스에 참여해 미국으로의 Fast-Fit 송금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호주, 캐나다 등으로 송금 대상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중국산 열연강판 수입 9배 ↑ 국내 철강사, 판가 제한 우려

과거와 같은 초저가 덤핑은 차단
안정적 공급시 수요분산 등 영향
“국내 철강사 판매량 감소 가능성”

최저수입가격(MIP·수출가격 인상약속) 제도 시행 이후 중국산 열연강판 수입이 다시 늘면서 국내 열연시장의 공급 여건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와 같은 초저가 덤핑은 차단됐지만, 향후 중국산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경우 실수요 업체의 구매 선택지가 확대되면서 국내 열연제품 수요가 일부 분산되고 국내 철강사의 판가 인상 여력도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중국산 열연강판 수입량은 8만4924톤으로, 지난 5월(9258톤)보다 약 9.2배 늘었다. 지난 1~5월 월 6000~1만2000톤에 머물던 수입량이 6월 8만톤대로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위축됐던 수입이 지난달 23일 MIP 시행을 계기로 다시 확대되는 흐름으로 업계는 상당수가 시행 직후 선택된 기존 계약 물량으로 보고 있다.

MIP는 반덤핑 조사 대상 수출업체가 정부와 약속한 최저가격 이상으로 수출하는 대신 덤핑방지관세를 유예받는 제



현대제철에서 생산하는 열연 제품. /현대제철

도다. 이에 따라 초저가 덤핑은 어려워졌지만 기준가격 이상에서는 중국산 공급이 가능하다. 최근 중국산 열연의 한국향 오퍼 가격과 실제 수입가격은 톤당 560~570달러(CFR) 수준이다. 업계는 6월 수입 증가가 국내 수요업체와 중국 철강사 간 기존 계약 물량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장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지난 6일 국내 열연 유통가는 톤당 97만원, 수입 열연은 92만원으로 지난 2월(국산 81만원·수입산 77만원)보다 모두 크게 올랐다. 잠정 반덤핑 조치 이후 수입재 영향력이 축소되고 원료가격 상승과 철강사

판가 인상이 반영된 결과다. 열연은 사용처와 수요처가 분산된 범용재여서 자동차 강판이나 조선용 후판보다 유통 시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유통가격은 시장의 대표 시세이자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지만 실제 납품가격은 거래 물량과 계약조건 등에 따라 개별 협상으로 결정된다.

중국산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경우 수요업체의 구매 선택지가 확대되면서 국내 열연제품 수요가 분산되고 국내 철강사의 판가 인상 여력도 제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열연 가격은 국내 철강사 실적의 핵심 변수다. 현대차증권은 지난해 열연 가격이 톤당 1만원 오르면 영업이익이 포스코는 6%, 현대제철은 4%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 열연 판매량은 포스코 약 850만톤, 현대제철 약 270만톤이며 매출 비중은 각각 약 22%, 15%다. 열연 가격은 냉연과 아연도강판 등 후속 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유입된 물량만으로 국내 철강사의 판매량 감소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중국산 공급이 지속될 경우 국내산 열연제품 수요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dhale@metroseoul.co.kr



metro

‘칩플레이션’ AS 파장… 소비자 부담 커져

부품 가격 급등… 비용 인상 불가피

‘칩플레이션’으로 촉발된 부품·자재 가격 급등이 완제품을 넘어 사후관리(AS) 시장까지 번졌다.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수리용 자재비를 올리면서 소비자 수리비 인상도 현실화됐다. 다만 인상 폭은 휴대폰 기준 평균 1만원 안팎으로 자재비 인상이 수리비에 그대로 전가되지는 않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초 삼성전자서비스에 납품하는 수리용 자재비를 인상했다. 지난 1월에 이어 6개월 만의 재인상이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경험(MX)사업부 제품 자재비는 평균 5%, 생활가전(DA)사업부 제품은 평균 9% 올랐다. 스마트폰용 칩·패널부터 에어컨과 세탁기에 들어가는 모터, 컴프레서까지 인상 대상에 포함됐다. TV를 담당하는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는 경쟁사와 부품값 차이가 크지 않아 이번 인상에서 빠졌다.

수리용 자재비는 통상 경쟁사 단가와 비교해 책정되는데, 앞서 경쟁사들이 먼저 값을 올리자 삼성전자도 이에 맞춰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S비용에서 자재비 비중이 80~90%에 달해 수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소비자가 부담할 인상은 품목당 수천원에서 1만원 안팎 수준이다. 삼성전자 서비스에 따르면 이번 자재비 인상으로 소비자 수리비는 휴대폰이 평균 1만1000원으로 가장 크고 에어컨 8000원, 냉장고는 300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자재비가 5%가량 오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가전 등의 AS는 고장 부품만 부분 교체하는 방식이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수리비 상승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리시 전체 자재비가 아닌 교체 대상 부품 가격만 청구액에 반영되는 만큼 자재비 인상이 수리비에 그대로 옮겨가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구남영 기자

LS일렉, AI DC 등 미래전력 솔루션 고도화

獨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 개발 협력

LS일렉트릭이 독일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미래 전력망에 적용할 직류(DC) 전력 솔루션 공동 개발에 나선다. 양사의 전력 시스템 통합 역량과 전력반도체 기술이 결합되면서 고효율 DC 전력 인프라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LS일렉트릭은 지난 10일 경기도 안양 LS일렉트릭 R&D 캠퍼스에서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와 ‘AI 데이터센터와 직류 전력 기술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 데이터센터 확산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전

력 수요에 대응하고 차세대 DC 전력 생태계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전력변환시스템(PCS)과 반도체 변압기(SST), 반도체 차단기(SSCB) 등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반 DC 전력 솔루션을 공동 개발한다. 아울러 DC 전력 시스템의 전력·전압 변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기술 개발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안길영 LS일렉트릭 생산·R&BD 총괄은 “인피니언과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DC 전력 인프라 솔루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AI 데이터센터와 미래 전력 시장 공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LG전자·GS건설, 차세대 AI홈 개발 ‘맞손’

쌍큐 온-자이 단지 인프라 연계
초개인화 주거 경험 구현 목표

LG전자가 GS건설과 손잡고 차세대 인공지능(AI)홈 공동개발에 나선다. 집안 가전과 아파트 단지 설비를 AI로 한번에 제어하는 주거 서비스를 새 아파트에 적용해 기업간거래(B2B) 사업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13일 LG전자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빌딩에서 류재철 LG전자 사장과 허윤홍 GS건설 대표 등 양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AI홈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LG전자는 AI홈 허브 ‘쌍큐 온(ThinQ ON)’을 중심으로 가전, 사물인터넷(IoT) 기기, 다양한 서비스를 연동한 AI홈 솔루션을 GS건설 주거 브랜드 ‘자이(Xi)’의 단지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조명·난방·가스밸브 등 세대 내 기기 제어는 물론 ▲엘리베이터 호출 ▲주차 위치 확인 ▲방문 이력 확인 ▲커뮤니티 시설 예약 등 단지 인프라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한다. 생성형 AI가 사용자와 대화하며 생활 맥락을 이해하고 개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 필요한 기능을 제안하거나 자동 실행하는 초개인화 주거 경험을 구현한다는 목표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양사가 체결한 ‘미래형 주거 로봇 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의 연장선이다. 당시 양사는 로봇 친화형 아파트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주거 공간 내 로봇 서비스 시나리오를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빌딩에서 LG전자 CEO 류재철 사장(오른쪽)과 GS건설 허윤홍 대표(왼쪽)가 ‘차세대 AI홈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LG전자

공동 개발하기로 했으며 홈로봇 ‘LG 클로이드(CLOiD)’와 자율주행 기반 배송 로봇을 활용한 단지 내 서비스 구현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AI홈 솔루션까지 더해 AI·로봇·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주거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LG전자의 아파트 특화 AI홈 사업은 이미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포스코이앤씨 주거 브랜드 ‘더샵’에 공급해 온 쌍큐 온은 누적 1만 세대를 돌파했고 쌍큐 앱의 아파트 특화 서비스 ‘우리 단지 연결’ 적용 세대는 올해 1분기 기준 30만 세대를 넘어섰다.

해외에서는 북미 건설사 고객(빌더)을 겨냥해 주택 내 가전과 공조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LG 쌍큐 프로(ThinQ Pro)’를 ‘KBIS 2026’에서 처음 선보이는 등 글로벌 건설 B2B 시장 공략도 병행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협약을 가전사와 건설사가 각자의 강점을 결합해 미래 주거 시장

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LG전자가 고품질 빌트인 가전과 AI홈 솔루션을 함께 공급하는 역량을 앞세워 건설사 협력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다.

류재철 LG전자 사장은 “LG전자의 AI홈 솔루션과 자이의 단지 인프라를 결합해 고객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새로운 주거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양사 협력을 통해 AI·로봇·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주거의 표준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주거의 미래는 단순한 기기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공간이 하나의 거주 경험으로 통합될 때 비로소 열린다”며 “LG전자는 최고의 기술 파트너와 함께 고객이 진정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미래 주거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삼양그룹, AI 포털 ‘SAMI 2.0’ 오픈

사내 업무 자동화 영역 확대

삼양그룹이 임직원 전용 인공지능(AI) 포털 ‘SAMI 2.0’을 열고 업무별 맞춤형 AI 구축과 사내 업무 자동화 확대에 나선다.

삼양그룹은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서비스 ‘SAMI 1.0’을 고도화한 ‘SAMI 2.0’을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SAMI 2.0은 국내외 사업장 임직원이 업무 파일을 개인 AI 데이터베이스(DB)에 업로드해 자신의

업무에 맞는 AI를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모든 자료는 외부가 아닌 사내 환경에서 활용돼 데이터 보안 우려도 줄었다.

삼양그룹은 앞으로 AI 결과물의 범위를 텍스트에서 이미지와 보고서 등으로 넓히고 사내 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해 업무 자동화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는 여러 AI 에이전트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상황에 맞는 제안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원관희 기자

HD현대오일뱅크

카엔 ‘카젠라운지’ 마련

HD현대오일뱅크는 카라이프 플랫폼 카엔(Car&) 앱에 카젠라운지를 새롭게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카젠라운지는 고급휘발유 ‘카젠’과 초고급휘발유 ‘울트라카젠’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주유 이력과 보너스포인트 조회, 추가 적립, 전용 이벤트 참여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객은 고급휘발유 주유 후 카엔 앱을 통해 카젠라운지에 접속할 수 있다. 주유

금액에 따라 최대 리터당 4포인트가 추가로 적립되며 5만원 이상 주유한 고객에게는 전용 레이싱 게임 참여권이 지급된다. 게임 참가자는 결과에 따라 주유패스 프리미엄 1개월 체권과 고급휘발유 주유 쿠폰, 보너스포인트 등의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출시를 기념한 프로모션도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 HD현대오일뱅크 주유소에서 고급휘발유를 주유한 뒤 카젠라운지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고급휘발유 주유 쿠폰을 제공한다.

/원관희 기자

플라스틱 용기 대금조사 내달 결론… ‘숨방망이 처벌’ 우려

중기부, 대·중견기업 7곳 현장조사
불공정·탈법 여부 놓고 내부 검토
탈법행위해도 과태료 부과 수준 낮아

상생협약 9곳, 납품가 200억 인상
협력사 394곳 등에 인상분 반영
150억 조기 지급해 유동성 지원

플라스틱 용기를 많이 쓰는 식료품·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 등 대기업·중견기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현장조사 결과가 오는 8월에 나온다.

불공정 거래행위 또는 탈법행위가 있다고 최종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다만 과태료가 ‘연동양정 미체결’의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 ‘탈법행위’는 횡수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5000만원 이하(3회)여서 숨방망이 처벌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플라스틱 용기 수요기업(위탁기업) 9개사는 협력 중소기업(수탁기업) 394개사에게 약 200억원의 납품대금을 올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용기

중소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 점검 결과

4월 9일 협약체결 이후, 수요기업(9개사)은 협력사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조정, 조기지급** 등 상생협약 이행

✓ **납품대금 조정**
9개 수요기업, 협력사 **394개 대상 총 200억원** 규모의 납품대금 인상

✓ **유동성 지원 등**
3개사 **조기지급 총 149.7억원** (10월 이내)
3개사 **납기연장·패널티 면제 54건** (납기연장 7.9일)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위탁기업 7개사에 대한 직권 현장조사를 끝내고 ‘상생협력법’에 따른 처벌 수준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결과는 빠르면 내달 중 나온다.

중기부는 앞서 식료품 제조, 음료 제조,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 3개 업종, 15개 위탁기업에 대해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납품대금을 수탁기업에 제때, 제대로 지급했는지 등에 대해 서면조사를 끝내고 이를 바탕으로 7개 기업을 추려 5월 중순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서면조사 결과 15개사는 지난 1년간 146개 용기 제조 중소기업과 약 3200억원 어치를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서면조사를 통해 이들 15곳 가운데 법 위반 의심 기업 2곳, 서류 제출 불성실한 기업 2곳, 거래 중인 수탁기업 이다수인 기업 3곳 등 총 7곳으로 현장조사 대상기업을 압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7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모두 끝내고 현재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상생협력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과 달리 과징금 처분은 없고 가장 큰 것이 과태료 부과로, 조사가 끝난 만큼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 불공정·탈법행위에 대해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지난 4월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플라스틱 관련 수요기업 9개사와 수탁기업을 대표하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와 체결한 상생협약 이행 실적 점검 결과를 이날 내놨다.

9개 수요기업에는 CJ제일제당, 대상,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삼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GS리테일,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가 이름을 올렸다. 이후 별도로 진행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서면 조사 대상에는 이들 9개사 외에 6개사가 더 추가됐다.

점검 결과 수요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94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총 약 200억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올려줬다.

플라스틱 용기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은 중동 전쟁 발발로 원유 수급길이 막히며 원가가 50~60% 가량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스틱으로 된 컵, 용기 등을 제조해 납품하고도 납품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던 차에 그나마 숨통이 트인 것이다.

아울러 수요기업은 149억7000만원의 납품대금을 10일 이내 조기 지급해 협력사의 유동성을 지원했다. 또 54건의 납기연장과 패널티 면제를 통해 납품 부담도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요기업 2곳은 협력사에게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펀드를 운영하고 있었다.

중기부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수요 대·중견기업들이 상생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상생협약 이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해 자발적인 상생협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공영홈쇼핑

AI모델 2인 새롭게 첫선

공영희·영언니 홍보 전면

공영홈쇼핑이 인공지능(AI) 모델 ‘공영희’와 ‘영언니’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들 AI 모델은 브랜드 필름, 프로모션 등 홍보 콘텐츠 전반에 활용할 예정이다.

13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40대의 이른바 ‘K-장녀’ 공영희는 신뢰와 공감을 상징하는 모델로, 공영홈쇼핑의 공공성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는다. 30대 ‘K-손녀’ 영언니는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는 프로모션 모델로 나설 예정이다. 향후 두 모델은 공영홈쇼핑의 대표 얼굴로서 숏폼 콘텐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홍보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은 이번 AI 모델 도입으로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한편, 콘텐츠 제작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두 모델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품을 알리는데 적극 활용해 판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공영홈쇼핑이 지난 4월 AI 모델을 앞세워 선보인 패션 전문 프로그램 ‘패션 팔로미’는 7일 기준 약 18억원의 판로지원액을 기록했다.

/김승호 기자

AI 고사양 회로박 앞세워 수익성 개선 속도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익산 생산능력 내년 1만6000톤 확대
회로박 성장으로 전지박 부진 보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고사양 회로박의 공급 부족 가능성이 커지면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실적 개선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유일 회로박 생산업체라는 강점에 판매량 증가와 생산능력 확대가 맞물리면서 전지박 부진을 일부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올해 2분기 매출은 1983억원, 영업손실은 171억원으로 예상된다. 적자는 이어지지만 회로박과 전지박 출하가 모두 늘면서 손실 규모는 전년 동기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박형우 SK증권 연구원은 “2분기 전체 판매량은 전분기보다 약 20% 증가할 전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익산공장 전경.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망”이라며 “회로박과 전지박 출하량은 각각 25%, 20% 늘어나겠지만 전지박 평균 판매가격(ASP)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수익성 개선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반기 실적 개선은 회로박 생산 확대와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전지박

출하 증가에 달릴 전망이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전북 익산공장의 전지박 설비 일부를 회로박 생산라인으로 전환해 AI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용 제품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익산공장의 연간 회로박 생산능력은 기존 3700톤에서 올해 6700톤으로 늘어

난 뒤 내년 상반기에는 1만6000톤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고객사의 추가 공급 요청에 맞춰 극박 투자를 포함한 하이엔드 회로박 생산능력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회로박은 인쇄회로기판(PCB)의 회로를 형성해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핵심 소재다. AI 가속기와 고성능 네트워크 장비의 데이터 전송량이 늘면서 고속 신호의 전송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초고속도(Hi VLP) 회로박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고사양 회로박은 표면 거칠기를 낮춰 고속 신호의 전송 손실을 줄여야 하는 만큼 높은 생산 기술이 요구된다. AI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용 기반 증설 속도를 동반 공급 확대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내년부터 회로박 공급 부족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관희 기자 wkh@



홍동석 대한전선 기술연구소장 상무(왼쪽부터), 김현주 대한전선 생산·기술부문장 전무, 권승희 명지대 하이브리드 구조실험센터장, 한종욱 명지대 하이브리드 구조실험센터 본부장이 해저케이블 구조 성능검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전선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성능검증

부유식 해상풍력 강화

대한전선이 명지대학교와 해저케이블 구조 성능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부유식 해상풍력용 다이내믹 케이블의 국내 개발·인증 기반을 강화한다. 대한전선은 지난 10일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학교 하이브리드 구조실험센터에서 해저케이블 구조 성능검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측은 해저케이블을 비롯한 전력·통신 케이블과 산업 제품의 구조 성능 시험 및 평가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관련 기술 연구와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명지대 하이브리드 구조실험센터는 대형 실험 장비와 첨단 계측 시스템을 갖추고 구조물과 산업 제품의 성능을 평가하는 전문 연구기관이다. 실제 사용 환경을 모사하는 하이브리드 실험 기술을 활용해 산업 구조물과 제품의 안전성 및 성능을 검증하고 있다. 해저케이블은 해저에서 장기간 운용되는 만큼 파도와 조류, 장력 등 실제 설치·운영 환경을 반영한 구조검증과 제품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원관희 기자

한솔테크닉스, 멕시코서 북미 전장 공략

전자변속장치·LED 등 현지 생산
베트남·태국 거점 기능별 전문화

한솔그룹의 전기·전자부품 전문기업 한솔테크닉스가 멕시코법인을 신설하고 북미 전장 시장 진출을 가속화한다. 한솔테크닉스는 기존 아시아 중심의 해외 생산체계를 북미까지 확대하고 생산거점별 전문화를 통해 제조 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편의 핵심은 멕시코법인 신설을 통한 북미 자동차 시장 진출이다. 북미는 연간 약 1600만대 규모의 차량이 판매되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가운데 하나로, 자동차 전장 부품의 현지 조달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솔테크닉스는 멕시코를 북미 생산거점으로 구축해 고객 대응력을 높이고 자동차 전장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멕시코법인인 전자변속장치, 내·외장 LED, 무선충전모듈 등 자동차 전장부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며 북미 주요 고객사와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물류 효율과 공급 대응력을 높이는 핵심 생산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시아 생산거점도 기능별 전문화를 추진한다. TV용 파워보드는 베트남 호치민 법인으로 생산을 일원화하고, 태국 법인은 가전부품 전문 생산거점으로 운영하는 등 생산거점별 역할을 재정립해 운영 효율성과 제조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시몬스, ‘쿨 썸머’ 프로모션 돌입

뷰티레스트 블랙 등 할인 혜택
쿨링 패드·올시즌 세트도 할인

‘뷰티레스트 블랙’ 등 제품 알뜰 구매 시몬스가 무더운 여름철 쾌적한 수면을 위한 ‘COOL SUMMER(쿨 썸머)’ 프로모션을 펼친다.

13일 시몬스에 따르면 이번 프로모션에선 최상위 라인인 ‘뷰티레스트 블랙’은 물론 업계 메가히트 매트리스 컬렉션 ‘뷰티레스트’를 특별한 혜택으로 만날 수 있다. ‘특급호텔 침대’이자 ‘국민 혼수침대’, ‘프리미엄 침대의 대명사’로 유명한 시몬스 제품을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매트리스 2조와 프레임 등을 함께

구매하면 추가 할인 혜택도 마련해 ‘독립수면’을 준비하는 부부나 자녀 침대를 고려 중인 학부모, 온 가족 침대를 일괄 교체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제격이다.

뿐만 아니라 여름 시즌 필수템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매트리스 쿨링 패드’와 ‘올시즌 쿨링 세트’ 구매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시몬스 침대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 고객들에게 혜택을 선사하는 ‘시몬스 Refresh & Rewards’ 프로모션도 중복 적용 가능해 고객 만족도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시몬스 침대는 프로모션 기간 구매 금액대와 품목에 따라 다양한 사은품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모든 사은품은 한정 수량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함께 만들어갈 모든 이의 내일에 하나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모두의 일상이 더 자유로워지도록
각자의 가능성이
더 넓게 펼쳐지도록

**하나가 모두의 내일에
힘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모두의 도전과 성장 응원

-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패럴림픽 국가대표 및 종목·선수 후원)
- 시각장애인 K리그 AI중계서비스 도입(2026 에디슨 어워즈 수상)

장애인식 개선 및 자립 지원

- 발달장애인 예술가 미술 공모전 개최

재활부터 자립까지 장애인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

- 재활·학습 보조 기구 지원 및 취업 교육
- 노후 장애인 거주시설 개보수 및 차량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AI 중심 투자 성과 가시화” vs “구조조정으로 체질개선”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 2분기 ‘호실적’ 전망

네이버, 검색·쇼핑·콘텐츠 연결 선제적 비용 집행… 투자 효과 ‘톡톡’ ‘N 배송’ 확대, AIDC 구축 계획 공개 카카오, 비핵심 사업 정리 등 재편 두나무 지분 매각해 투자 재원 마련 AI, 아직 핵심 수익 성과 초기 단계



네이버.

두 회사 모두 호실적이 예상되지만, 네이버는 투자 확대에 따른 외형 성장, 카카오는 비용 절감에 따른 이익 개선이라는 서로 다른 구조를 보이고 있다.

◆ AI·커머스·인프라… 성장에 베틀한 네이버

네이버는 올해 들어 AI를 중심으로 검색과 쇼핑, 콘텐츠를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는 데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영업이익 증가폭이 크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AI 서비스 운영을 위한 GPU 등 인프라 투자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배송 혜택 확대, 스포츠 콘텐츠 확보 등 미래 사업을 위한 선제적 비용 집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 효과는 서비스 곳곳에서나



카카오.

/AI로 생성한 이미지

타나고 있다. 지난달 정식 출시한 ‘AI템’은 베타 서비스 기간 누적 이용자 400만명을 돌파하며 AI 검색의 새로운 진입점으로 자리 잡았다.

이달 21일부터는 생성형 검색 결과인 ‘AI브리핑’에도 광고가 도입된다. 기존 검색 광고를 AI 환경으로 확장하며 본격적인 수익화에 나서는 것이다.

검색과 쇼핑도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네이버는 CJ대한통운, 한진 등과 협력해 오늘배송·내일배송·일요배송·새벽배송을 아우르는 ‘N배송’을 확대하고 있다. AI 검색에서 상품 탐색, 구매, 배송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전략이다. 여기에 AI 인프라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공

개하며 AI 서비스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의 AI 인프라 사업에도 참여해 중장기 성장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 구조조정으로 체질 개선…성장 과제 남은 카카오

카카오는 네이버와 달리 사업 효율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수년간 추진했던 계열사 확대 전략에서 벗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핵심 사업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있다. 포털 ‘다음’ 분사를 비롯해 계열사 구조조정과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비용 절감 효과가 2분기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다.

투자 재원도 마련했다. 카카오는 최근 자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을 매각해 대규모 현금을 확보했으며, 이를 AI를 비롯한 미래 성장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구조조정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얼마나 빠르게 만들어낼지가 과제라는 평가도 나온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챗GPT 포카카오’와자

체 AI 모델 ‘카나니’를 활용한 AI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AI가 광고와 커머스 등 핵심 수익으로 이어지는 성과는 초기 단계라는 분석이다.

◆ 하반기 승부는 ‘AI가 얼마나 돈을 버느냐’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반기가 국내 플랫폼 산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는 공격적인 AI 투자가 실제 광고와 쇼핑 매출 증가로 이어져야 하고, 카카오는 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AI 신사업의 성장으로 연결해야 한다.

결국 생성형 AI 경쟁의 승부는 더 많은 답변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 AI가 이용자를 검색에서 쇼핑과 예약, 결제까지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이를 새로운 매출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는 단기 이익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AI 생태계를 선점하는 전략을 선택했고, 카카오는 체질 개선을 통해 미래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택했다”고 분석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KT, AI로 악성메일 3단계 필터링한다

‘공공형 AI 메일보안’ 서비스 선택 ‘One-뷰’로 보안 업무 효율성 ↑ AI·APT 결합 이메일 보안 CSAP 인증

KT가 공공 이메일 보안 시장 공략에 나선다.

KT는 ‘공공형 AI 메일보안’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로 랜섬웨어, 피싱메일 등 사이버 위협을 인공지능(AI) 기술로 탐지·차단한다. 주요 고객은 공기업, 국립대학교 등이다.

공공형 AI 메일보안 서비스는 악성 메일을 정교하게 식별·차단하기 위해 스팸 차단, AI 분석, 지능형 지속 공격(APT) 대응 등 3단계 필터링 체계를 거쳐 정상적인 메일만 안전하게 전달한다.

또 APT 단계에서 분석 엔진을 최대 3종을 제공한다. 분석은 대부분 1분 이내에 완료되고 이메일 수신 지연을 최소화한다. 현재 AI 학습과 보안 고도화를 통해 97% 이상의 악성메일 탐지 정확도를 유



KT 직원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CSAP)을 획득한 ‘공공형 AI 메일보안’ 서비스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KT

지하고 있다.

보안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One-뷰’ 기능도 제공한다. 한 화면에서 AI 분석과 탐지 기술을 통해 확인한 악성 행위 발생 내역, 위험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급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CSAP)을 획득했다. 이는 AI와 APT 기술을

결합한 이메일 보안 서비스 중 국내 최초 CSAP 인증 사례다.

공공기관은 서비스 도입을 통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투자 없이 디지털 전환과 보안 강화를 동시에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KT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공공 부문에서 이메일 보안 수준을 높이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msjo@

LG헬로비전 트로트 예능 한자리에

LG헬로비전은 트로트 콘텐츠 월 정액 상품 ‘트로트조이스’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트로트 경연 예능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등 전편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트로트 관련 음악·공연·예능과 미스트롯 포유 등 파생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했다. 현재 방영중인 최신 프로그램은 본 방송 일주일 후부터 전용관에 순차적으로 올라간다.

시니어층을 주요 고객으로 설정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게 특징이다. VOD 메뉴에서 간단히 가입하고 전용 편성관 채널 131번에서 만날 수 있다. /조민선 기자

SKT, 해외여행 고객 대상 T로밍 프로모션

2030세대 첫 로밍 이용 시 70% 할인 YT 요금제 이용 시 16GB 데이터 제공

SK텔레콤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고객을 대상으로 T로밍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2030세대 중 로밍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 7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1986년부터 2006년 사이에 출생한 고객은 해외 로밍 요금제 ‘바로 YT 4GB 요금제’를 선택하면 87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바로 요금제 또는 바로 YT 요금제 4종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16GB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가 소진된 이후에도 최대 1Mbps 속도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바로 YT 요금제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T 멤버십 ‘클럽 T 로밍’으로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데이터 1GB를 무료 충전과 함께 제휴사 혜택을 통해 귀국 후 5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로밍 데이터 5GB를 기준으로 체감 요금은 3700원까지 낮아진다.

또 가족 단위 여행객은 최대 5명까지 데이터를 함께 쓸 수 있다. 가족 로밍 추가 요금은 3000원이다. /조민선 기자

그라비티, 공동대표 체제로 경쟁력 강화

박현철·기타무라 요시노리 대표 선임

글로벌 게임 기업 그라비티가 공동대표 체제 전환을 계기로 본사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속 성장을 위한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그라비티는 올해 3월 박현철 대표와 기타무라 요시노리 대표를 공동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했다. 박 대표는 한국 본사의 개발·운영과 조직 운영, 인재 관리 등을 총괄하고, 기타무라 대표는 글로벌 사업 전략과 IP 전략, 신사업, 해외 그룹사 협력 등을 담당한다.

이번 체제 전환은 사업 영역 확대와 경영 과제 고도화에 대응해 각 대표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그라비티는 대표 지식재산권(IP)인 ‘라그나로크’를 중심으로 게임뿐 아니라 M D, 전시, 음악회, 애니메이션 등 원소스 멀티유즈(OSMU)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작 ‘라그나로크 온라인’은 올해 서비스 24주년을 맞았다.

올해 들어서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대만·홍콩·마카오 등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오픈월드 MMORPG ‘RO선경전설: 세계지려’, 로그라이크 배틀로얄 모바일 RPG ‘라그나로크 엔드리스 트레일즈’, HTML5 기반 방치형 MMORPG ‘라그나로크: 트와이라이트’ 등 다양한 장르의 신작을 선보이며 IP 확장에 나섰다.

콘솔 시장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라그나로크 콘솔 프로젝트’의 공식 스팀 페이지를 공개했으며, 애니메이션 ‘라그나로크 몬스터 마법 대소동!’은 카툰 네트워크 코리아 TV 채널 톱10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등 콘텐츠 사업에서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회사는 올해를 중장기 사업 비전인 ‘라그나로크 허브’ 실현의 원년으로 삼고 대형 신작 출시, 신규 장르 개척 등을 통해 IP 경쟁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SK텔링크,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 확장

한국도로공사에 공급

SK텔링크는 한국도로공사에 저궤도 위성통신을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로·교통 인프라는 터널과 산간 구간 등 음영 지역과 재난 발생으로 인해 안정적인 지휘·상황 공유 체계가 중요하다. 이런 환경에서 저궤도 위성통신은 현장과 상황실 간 연결성을 보완해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공급을 통해 SK텔링크는 도로·교통 인프라에 위성 통신을 최초 적용하게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10개 지역본부에 초도 구축을 마쳤다. 이동형 스타링크 단말을 설치해 호우·산불·지진 등으로 지상

통신망 장애가 발생하거나 통신 음영지역에서 긴급 대응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향후 재난 대응 환경에서 안전성과 활용성을 검증한 뒤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SK텔링크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한국전력공사, 스타링크코리아와 저궤도 위성통신을 위한 협력을 체결했다.

경쟁력은 운영·보안·컨설팅을 결합한 통합 운영 모델이다. 발주 기관의 보안 정책에 맞춰 단말 구성과 설치 기술 지원을 지원한다. 또 양자암호 기반의 보안 기술을 적용해 운영 안정성과 보안 역량도 확보했다. /조민선 기자

SK하이닉스 ADR 효과… 미국 레버리지 ETF ‘줄상장’

레버리지 ETF, 뉴욕증시 순차 출시
한미 시장 변동성 상승 가능성 제기
장기적인 멀티플 확대 등 기대감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연계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뉴욕증시에 잇따라 출시된다.

12일(현지시간) 각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레버리지셰어즈, 그레나이트셰어즈, 프로셰어즈, 코기펀츠 등 미국 ETF 운용사들이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13~14일께 뉴욕증시에 SK하이닉스 ADR와 연계한 ETF를 출시한다고 예고했다.

레버리지셰어즈는 SK하이닉스 ADR 주가의 일일 변동폭과 연동된 2배 레버리지 ETF(종목코드 SKHX)와 인버스 ETF(SKHZ)를 13일 출시했다.

프로셰어즈 역시 2배 레버리지 ETF(SKHU)를 같은 날 출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그레나이트셰어즈는 2배 레버리지(SKUU) 및 2배 인버스(SKDD) ETF 상품을 각각 14일 출시한다고 공지했다. 코기펀츠도 14일 2배 레버리지 ETF를 출시한다



ChatGPT로 생성한 관련 이미지.

고 밝혔다.

디렉시언은 2배 레버리지(SKHL) ETF 상품 출시를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출시 날짜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들 레버리지 상품의 실제 거래 일시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미국 ETF 운용사들은 엔비디아, 알파벳, 테슬라, AMD 등 뉴욕증시에 상장된 주요 빅테크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인버스 포함) ETF를 출시해 운용하고 있다.

지난달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된

직후에도 스페이스X 주가와 연동된 레버리지 ETF 상품들이 봇물 터지듯 출시된 바 있다.

SK하이닉스 ADR는 지난 10일 공모가 대비 13.08% 급등한 168.49달러에 마감하며 뉴욕증시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파생금융상품을 활용해 개별종목 일일 등락 폭의 2배 성과를 따라가도록 설계된 고위험 상품이다.

이런 구조의 레버리지 상품은 통상 장

마감 무렵 매일 익스포저를 재조정(리밸런싱)해야 하는데, 스왑 상대방인 투자은행 등이 이 물량을 커버하기 위해 실제 ADR을 사고파는 헤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의 일중 변동성을 키우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커진 ADR의 변동성은 ADR-본주 간 괴리율 변화를 통해 국내 투자자들의 매매 판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국내에 이미 상장된 SK하이닉스 연계 레버리지 상품과 맞물릴 경우 양국 시장에서 레버리지 자금이 동시에 움직이며 변동성이 상호 증폭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신규 상장 초기인 만큼 SKUU·SKDD의 운용자산(AUM) 규모는 아직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코스피 본주 변동성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있다.

다만 SK하이닉스의 주가 전망은 장밋빛이다.

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도 “그동안 경쟁사 대비 평평했던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편입시 자금유입이 전망되며 이는 본주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고 기대했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기업의 ADR 상장이 장기적인 멀티플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이를 SK하이닉스에 적용해 글로벌 피어인 마이크론과 비교하면,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던 SK하이닉스 및 국내 반도체주의 밸류에이션 갭이 축소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반도체 기업의 시장지배력과 수익성 우위를 고려하면 “향후 멀티플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단계를 넘어 멀티플 프리미엄 구간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향후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는 SK하이닉스 ADS의 미국 주요 지수 편입 여부, 본주와 ADR의 상호전환에 따른 차익거래 현실화의 두 가지가 언급된다.

역대 3번째로 큰 기업공개(IPO)였다든 점 등을 고려할 때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SOX) 편입은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삼성·하닉 레버리지 ETF 줄줄이 신저가

한 달 사이 시가총액 6조 증발
투자자 보호 제도 개선 목소리

코스피가 6900선 밑으로 추락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들도 역대 최저가로 내려앉았다. 본주 하락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 특성상 손실 폭이 빠르게 커지면서 시가총액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6조원 넘게 증발했다.

13일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국내에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4종이 이날 장중 모두 상장 이후 최저가를 새로 썼다.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가운데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장중 1만4835원까지 떨어졌다. 지난 5월 말 상장 이후 가장 낮은 가격으로, 지난달 23일 기록한 최고점 4만4385원 대비 66.6% 하락했다.

이외 ‘ACE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RIS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SOL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

버리지’, ‘1Q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KIWOOM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등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 6종이 모두 역대 최저점으로 내려앉았다.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는 장중 1만2035원까지 밀리며 상장 후 최저가를 기록했다. 지난달 2일 기록한 고점 3만395원 대비 60.4% 떨어졌다.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ACE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PLUS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RISE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1Q 삼성전자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KIWOOM 삼성전자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도 일제히 신저가를 경신했다.

이들 상품은 기초자산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구조다. 두 종목의 주가가 큰 폭으로 밀리면서 레버리지 ETF의 낙폭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자금도 빠르게 줄고 있다. 지난달 25일 16조원을 웃돌았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ETF 16종의 시가총액은 이날 9조 6536원까지 줄어들면서 10조원을 하회했다.

이날 코스피는 장 중 8% 넘게 떨어지며 오후 1시 28분께 올해 7번째 서킷브레이크가 발동됐다. 삼성전자는 11.22% 하락한 25만3000원, SK하이닉스는 15.64% 떨어진 183만9000원까지 밀렸다.

거래가 집중되고 있는 점도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 중 하나다. 지난 10일 기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의 거래대금은 10조 1157억원으로, 전체 ETF 거래대금 31조9757억원의 31.6%를 차지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투자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본예탁금 상향, 투자자별 투자 비중 제한, 교육 강화 등이 언급된다.

이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20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ETF 시장 현안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신하은 기자



Global X Japan 운용자산 1조엔 돌파에 임직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 일본 ETF 운용자산 1조엔 돌파

테마형·인컴형 ETF 앞세워 성장
박현주 회장, 다이와와 협업 결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일본ETF 운용회사인 글로벌엑스재팬(Global X Japan)이 운용자산(AUM) 1조엔을 돌파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일본 ETF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다이와증권그룹과 추진한 현지 사업이 설립 6년 만에 운용자산 1조엔을 넘기고 첫 연간 흑자가 지 달성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3일 Global X Japan의 6월 말 기준 운용자산이 1조1400억엔(약 70억달러·1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처음 1조엔을 넘어선 이후에도 자금 유입이 이어지며 성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Global X Japan은 2019년 설립된 일본 ETF 전문 운용사다. 최근 3년간 운용자산은 약 7.5배 증가했고 연평균 성장률(CAGR)은 89.7%를 기록했다.

회사는 AI, 반도체, 커넥트 등 테마형 ETF와 인컴형 ETF를 중심으로 상품 경쟁력을 키우며 투자자 기반을 확대했다. 2020년 첫ETF를 출시한 이후 현재까지 71개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신NISA 제도 시행 이후 개인투자자의 ETF 투자 수요가 늘어난 점도 성장에 힘을 보탰다. 올해 일본ETF 시장 전체 순유입 규모 약 27억달러 가운데 Global X Japan에는 약 15억달러가 유입됐다.

/허정윤 기자

카카오페이증권, 투자매매업 인가 획득

자기자본 활용 상품 인수·공급 가능

카카오페이증권이 투자매매업(증권)인가를 취득했다. 이전까지 투자중개업이었던 카카오페이증권은 이제 유가증권의 중개와 더불어 직접 인수와 매매,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페이증권은 금융당국이 지난 1일 카카오페이증권의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등록(1-1-1 투자매매업·증권) 신청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카카오페이증권은 자기자본을 활용한 상품 인수 및 공급이 가능해진다. 카

카오페이증권은 “이번 인가는 리테일과 투자금융(IB)사업을 잇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기업공개(IPO) 주관 및 인수 사업이 가능해진다. 공모주 청약 서비스의 법적 토대 또한 마련하게 됐다.

리테일 채권 매매와 국내외 소수점 거래 등 사용자 대상 상품 종류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세일즈앤트레이딩(S&T)사업 확장,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 참여, 채권 운용 다변화 등 자기자본을 활용한 수익원도 넓어진다.

/허정윤 기자

한국투자증권, 360억엔 엔화채 발행 완료

일본 자본시장 점점 넓혀

한국투자증권은 총 360억엔(약 3353억원) 규모의 엔화 표시 무보증 사채(사무라이본드) 발행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수요예측에서 총 531억엔의 유효 주문을 확보하며 현지 기관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만기별 발행 규모는 2년물 170억엔, 3년물 93억엔, 5년물 97억엔이다.

가산금리(스프레드)는 2023년 첫 발행 당시보다 크게 낮아졌다. 2년물은 15bp(1bp=0.01%포인트) 축소된 TONA(무담보 익일물 콜금리) 미드스왑 대비 +130bp, 3년물은 40bp 낮아진 +170bp로 결정됐다. 이번에 처음 선보인 5년물은 +185bp 수준으로 발행됐다. 발행 주간은 SMBC닛코증권이 맡았다.

한국투자증권은 2023년 국내 증권사 최초로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00억엔을 추가 조달하며 일

본 자본시장과의 접점을 넓혀왔다. 현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투자설명회(IR)를 열고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알린 점이 투자자 신뢰를 높였다는 평가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발행은 일본 공모채권시장에서 한국투자증권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투자 저변을 장기물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조달 자금을 활용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다각화하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10일~11일까지 충남 서산 베니키아호텔에서 이정복 사장(앞줄 왼쪽 일곱 번째)을 비롯한 경영진과 본사 처·실장, 사업소장, 주요 부서장 등 처·실장급 이상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했다. /서부발전

서부발전, AI·무탄소 ‘스피드경영’ 착수

2040년 재생에너지 13.9GW 목표

한국서부발전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인공지능 전환(AI) 등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스피드 경영’에 본격 착수했다.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3.9기가와트(GW)까지 끌어올리고, 발전소 현장에 실물 인공지능(Physical AI)을 도입해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서부발전은 지난 10일~11일까지 충남 서산 베니키아호텔에서 이정복 사장을 비롯한 본사 처·실장, 사업소장 등 처장급 이상 경영진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서부발전이 추진 중인 태안 청정에너지 개발단지 조성 방안을 중심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무탄

소 에너지 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서부발전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3.9GW를 확보, 정부의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이행에 최전선에서 선도할 방침이다.

발전산업의 디지털 혁신 방안도 구체화됐다. 경영진은 발전소의 안전·정비·운영 혁신을 위한 ‘실물 인공지능(Physical AI)’ 활용 방안과 함께, 생성형 AI 확대 및 업무 특화 AI 플랫폼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하며 현장 생산성을 극대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외에도 서부발전은 경영평가 대응,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 재무구조 개선, 청렴·조직문화 개선 등 주요 경영 현안을 점검했으며, 워크숍에서 도출된 과제들은 검토를 거쳐 현장에 즉각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산업부, ‘EU 공급망 실사지침’ 대응 총력

주요 대기업들과 민관합동 간담회

정부가 유럽연합(EU)의 고강도 환경·인권 규제인 ‘공급망 실사지침(CSDD)’ 세부 지침 마련을 앞두고 삼성, 현대차, 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과 함께 민관합동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업계 목소리를 모아 EU 집행위에 정부 공식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유관기관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간담회를 열고, 현재 EU 집행위원회가 진행 중인 공급망 실사지침 가이드라인의 공개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올해 3월 발효된 공급망

실사지침을 회원국들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역내외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 이행 가이드라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국내 산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정부 차원의 공식 의견서를 마련하고, 이를 기한 내에 EU 측에 제출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오는 2027년 7월경 최종 가이드라인을 공표할 예정이다. EU 회원국들은 이 지침에 맞춰 2028년 7월까지 자국내 관련 법률과 제도를 완벽해야 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수부-인니,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

LNG 공급설비 개조·실증
CCS 용도 활용 공정설계 주도

해양수산부가 14일 인도네시아 정부와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을 위한 이행약정’을 체결한다.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은 플랜트 건조 이후에 요구되는 운영·유지보수, 해체, 재활용 등을 포함하는 분야다.

이번 약정을 통해 지난 4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업무협약(MOU)을 구체적인 사업 단위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양국의 역할과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한 후속 조치다.

해수부는 인도네시아의 노후 해양플랜트를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설비로 개조해 실증하고, 이를 탄소 포집·저장(CCS)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공정 설계와 해

상공사 등 사업 전환을 주도한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국비 350억 원을 투입해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지 해양플랜트 관련 정보제공과 각종 인허가 발급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양국은 공적 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한 현지 전문인력 양성 및 우리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교육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인니 교통부 산하 자카르타 해양대학교에 교육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현지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중장기 국내 초청 연수와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한국은 예산 지원과 교육 과정 개발·운영을 맡고, 인도네시아는 현지 교육생 추천과 물자 지원 등을 책임진다. /세종=김연세 기자

조선업 첫 노사정 협의체 출범 “호황 기회 살려 국가 전략산업으로”

고용부-산업부, 활동 본격화
양대 노총, 주요 조선사 등 동참
운영·실무협의체 상설 운영

조선업 역사상 처음으로 양대 노총과 주요 조선사, 정부가 모두 참여해 업계 현안을 상시 논의하는 대화기구가 출범했다. 전환경 고부가 선박 수요를 바탕으로 장기 호황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조선업 현장에 산재한 숙련인력 부족, 경기 사이클 반복 속 고용 불안 등 해소를 위해 노사정이 협력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1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와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5월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노동자-사용자-협력업체 간 대화 시스템’을 노사정이 두 달여간 논의한 끝에 마련했다.

협의체 출범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조선노연은 물론 한국노총 금속노련까지 노동계 양대 축이 모두 동참하고, 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주요 조선사와 정부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업종별 사회적 대화의 큰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해 상시 대화하는 업종 차원의 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발족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의체가 만들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 모두 조선업에 찾아온 호황의 기회를 함께 살리고 키우자는 하나의 목표 아래 함께 뜻을 모으겠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대표급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나뉘어 상설 운영된다. 실무협의체는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 생태계 구축 ▲청년의 조기입직 및 장기근속 지원 ▲노사 협의로 AI를 활용한 사업장 안전체계 구축 등을 핵심 의제로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의견이 모이는 대로 즉각 성과를 내는 한편, 법안이나 예산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한다

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조선업의 경쟁력은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손끝에서 나온다”며 “지금의 호황이 청년이 찾아오는 꿈이 있고 안전한 일터, 지역과 협력사까지 함께 잘 사는 구조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이 협의체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정이 함께 상생호의 닻을 올린 만큼, 조선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를 굳히고, 그 성과가 청년과 지역, 협력사까지 골고루 닿도록 지속가능한 성장의 항로를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aT, K-외식기업 4곳 日 시장 진출 지원

오사카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비빔밥, 부대찌개, 간편죽, 사과파이
바이어·관람객 1000명에 시식 행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일본 오사카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가해 국내 외식기업의 현지시장 진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오사카 프랜차이즈쇼는 외식·소매·서비스 분야 프랜차이즈 본사와 예비 가맹점주, 유통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서일본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전문 박람회다. 지난 2~3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올해 행사에는 122개 기업이 참가해 브랜드 및 사업모델 등을 선보였다.

aT는 한국관을 운영하며 비빔밥·부대찌개·간편죽·사과파이 등을 주력 메뉴로 하는 국내 외식기업 4개사를 지원했다. 참가 기업들은 대표 메뉴 시식 행사와 함께 브랜드 운영 방식, 가맹사업 모델 등을 소개했다.

행사 기간 한국관에서는 현지 바이어와 관람객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부대찌개 등의 시식 행사가 진행됐다. 참가 기업들은 메뉴 경쟁력과 함께 가맹사업 운영 방식, 유통 기능성 등에 대한 상담을 이어갔다.

특히 해외 사업자가 국내 외식 브랜드의 상표와 운영 노하우를 도입해, 현지에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마스터 프랜차

이즈’ 계약 등이 소개됐다.

일부 일본 바이어는 한국관 참가기업과 푸드코트형 매장 운영과 비빔밥 전문 브랜드 도입 방안을 협의했다. 사과파이 전문기업과는 일본 내 팝업매장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등 후속 사업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aT는 설명했다.

aT의 전기전 aT 수출식품이사는 “일본은 K-푸드에 대한 인지도와 소비 기반이 탄탄한 핵심 수출시장”이라며 “이번 박람회에서 확인한 K-외식의 경쟁력이 실제 진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지 사업자 발굴과 상담, 후속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중부발전-유니슨, 고창서 해상풍력 확장

해상풍력 단지 운영·유지보수 협력

한국중부발전과 풍력터빈 제조 선도기업인 유니슨이 국내 해상풍력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조기 구축을 위해 협력한다.

중부발전은 지난 10일 유니슨과 해상풍력 발전단지 운영 및 유지보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단지 운영·유지보수 계획 수립, 기술 교류, 전문 인력 양성 등 전방위적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

하기로 했다.

특히 양사는 협약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첫 단추로 ‘고창 해상풍력 발전사업(76.2MW)’을 낙점했다. 고창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공동 발굴하는 신규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중부발전은 2024년 제1주 한림 해상풍력(100MW) 준공 및 운영 경험과 올해 추진 중인 신안우이 해상풍력(390MW) 등 대규모 대형 프로젝트에서 축적한 사업개발·운영 노하우를 전격 공유한다. 유니슨은 국산 풍력터빈 제조



고창 해상풍력 사업 조감도. /중부발전

사로서 고도화된 유지보수 경험과 인력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본격화… 군공항 이전 ‘최대 과제’

광주 군공항 부지에 800조 규모 조성 군사시설 이전 지연시 계획 차질 국방부·국토부 등 협의체 가동

광주 군공항 부지에 800조 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본격화된 가운데, 사업 성패의 핵심 열쇠인 제1전투비행단과 주한미군 시설 이전 협의가 수면 위로 올랐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30년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지만, 군사시설 이전이 지연될 경우 전체 전력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서남권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공장 4기) 조성 계획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부지가 광주 군공항(826만㎡·250만 평)으로 전격 결정됐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올해 말 또는 2027년 초 착공을 시작으로 2028년 인프라 구축, 2030년 양산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전략위원회와 행정 중심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뉴시스

반도체산업지원단'을 가동하고, 군공항 내 탄약고 이전 예정 부지에 우선적으로 반도체 공장 1기를 조기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부지 활용을 위한 청사진은 나왔다. 제1전투비행단과 한·미 공동운영기지의 이전 없이는 첫 삽도 뜨기 어렵다. 전투기 이착륙이 지속되고 유사시 미 공군 전력을 위한 시설이 남아있을 경우,

군사보호시설 접근 제한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묶여 어떠한 개발 행위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군공항의 완전한 기능 이전이 반도체 공장 설립의 전제 조건인 셈이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연내 군공항 이전지를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국토부, 행안부, 무안군 등이 참여하는 5자 협의체 및 선정위원회

를 이달 중 개최해 '이전 후보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 4월 무안군 망운면이 예비후보지로 지정된 후 3개월 만이다. 이후 1조 원 규모의 지원 방안 공고, 10월 주민투표 등을 거쳐 연내 행정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최대 난제인 미 공군 시설 이전 협의도 시작됐다. 청와대는 한미 간 관련 협의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밝혔으며, 국방부 역시 안보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의의 중이라고 전했다. 광주 군공항은 미군이 상주하진 않지만 유사시 작전이 전개되는 공동운영기지로, 미군 전용구역만 74만2000㎡(22만 평)에 달한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미군 측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선 만큼, 2030년 양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홍식 라자로 추기경이 서산 해미국제성지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

충남도, WYD 앞두고 교황 방문 추진

(세계청년대회)

유홍식 추기경에 협조 요청 국제 성지 도약 기대

충남도가 내년 세계청년대회(WYD) 기간 교황 레오 14세의 충남 방문을 위해 직접 유홍식 라자로 추기경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12일 서산 해미국제성지에서 열린 유홍식 라자로 추기경 집전 미사에 참례한 뒤, 한담 자리에서 "해미국제성지를 비롯한 충남의 천주교 성지들은 한국 교회 신앙의 뿌리이자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찾는 순례 거점"이라며 "세계청년대회 기간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청년 순례자들과 함께 교황님

을 충남에서 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미사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홍식 추기경이 여름 휴가를 맞아 귀국해 마련한 자리로, 박 지사를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성일종 국회의원과 신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유 추기경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천주교 대전교구장을 지낸 뒤 2021년 6월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에 임명됐다. 대전교구 관할 성지인 해미국제성지와도 각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그냥드림사업, 복지 사각지대 해소 '톡톡'

해남군, 6개월간 물품 지원 948건

해남군 그냥드림사업이 긴급 지원이 필요한 군민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

그냥드림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등으로 식료품 등 지원이 필요한 개인 이용자에게 별도의 소득 심사 없이 식료품을 즉시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특히 해남군은 해남기초푸드뱅크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14개 읍·면지역까지 확대해 총 15개소에 '그냥드림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6개월여 간 물품 지원 948건, 상담 480건, 복지서

비스 연계 251건에 이르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남군의 읍면 그냥드림코너 운영은 주민 밀착형 모범사례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며,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줄을 잇는가 하면 보건복지부 워크숍을 통해 읍면형 모델로 사례 발표를 하는 등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먹거리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의 발굴과 민관 협력의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도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왔다.

/해남(전남광주)=이대호 기자 eogh7505@

부산시, 청년고용 우수기업 5개사 선정

인증현판 수여 등 인센티브 제공

부산시가 13일 오전 11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청년고용 확대에 힘써 온 지역기업 5개사를 '2026년 청년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 선정된 5개 기업은 금오기전, 소셀빈, 씨넷, 아이큐랩, 한미유압기계 등으로, 총 23개 신청 기업 중에 서류평가, 현장평가, 면접평가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최근 3년간 청년고용 확대와 우수한 복지제도,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등에 앞장선 기업들로, 조선기자재, 전력반도체, 정보통신, 생활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는 지역 대표 기업들이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특히 부산 최초 예비유니콘 기업인 소셀빈을 비롯해 전력반도체 분야 미래산업 선도기업인 아이큐랩, 친환경 선박기자재 전문기업인 금오기전, 조선·해양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업인 씨넷, 선박엔진용 유압기계 전문기업인 한미유압기계가 포함돼 지역 주력산업과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기업들이 고루 선정됐다고 부산시는 덧붙였다.

선정된 청년고용우수기업에는 인증서 및 인증현판수여, 좋은일터강화지원금 4000만원 지원, 신규 취득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부산시는 오는 9월에는 청결기업 메가(Mega)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청년과 지역기업간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양산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 발급 완료

12월 개통 청신호

양산시는 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양산도시철도의 운영기관인 (주)유진메트로양산과 부산교통공사가 경상남도로부터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면허 발급으로 양산도시철도는 여객운송사업을 수행할 법적 자격을 갖추게 됐다.

운행구간별 운영 주체에 따라 면허가 각각 발급됐다. 유진메트로양산은 양산북정역~부산노포역까지 이어지는 신철사업구간 11.43km에 대한 면허를 부산교통공사는 기존 부산도시철도 2호선과 양산도시철도를 연결하는 양산중앙역 연결구간 0.55km에 대한 면허를 취득했다.

경남도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운송사업계획, 운영인력 확보계획, 유지관리체계 및 안전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면허를 발급했다.

양산도시철도는 내달 3일부터 10월5일까지 영업시운전을 실시한다. 실제 영업운행과 동일한 조건에서 열차 운행의 정시성과 안전성, 시설물 연계 운영상태,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종합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영업시운전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사항을 개통 전까지 보완하기 위해 경남도, 부산교통공사, 유진메트로양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 개통 전까지 경상남도 도시철도운임조정위원회와 양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임체계를 확정하고, 운송사업자의 운임 신고와 운송약관수리 등 후속 행정절차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에 개통계획과 영업개시 일정 등을 보고하는 등 법정 절차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양산(경남)=이도식 기자

지역 이모저모

국립부경대

‘산업맞춤 자율공동훈련센터’ 선정

국립부경대학교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산업맞춤형 자율공동훈련센터'에 선정됐다.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는 대학이나 기업 등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재직자에게 맞춤형 직무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223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년 연속 성과 평가 상위 30%에 든 기관을 '자율공동훈련센터'로 선정해 사업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올해 선정된 자율공동훈련센터는 전국 46곳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포항시

무더위 쉼터 677개 운영

포항시는 폭염 중대 경보 발령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무더위 쉼터 운영 확대, 야외 작업장 안전 관리 등 현장 중심의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인명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저소득층과 홀몸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시민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더위 쉼터도 확대 운영했다. 시는 총 677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폭염이 장기화할 때 운영 시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거나 추가 개방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포항(경북)=김진권 기자 jingon@

경남도

정보보호 사이버공방전 개최

경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가 오는 14일 김해경남콘텐츠기업 지원센터에서 '2026 동남권 정보보호 사이버공방전(SECTOR)'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부·울·경 차세대 사이버 보안 인재를 발굴하고 동남권 특화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실전형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원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참여하는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하나로 열린다.

/경남=이도식 기자

경북도

관광명소 담은 여행 안내서 발간

경북도가 관광객들이 효율적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도내 22개 시군의 150개 관광명소와 추천코스를 담은 '경북, 시간과 풍경을 잇다'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강과 바다, 산과 계곡, 들녘이 어우러진 경북의 역동적인 자연환경과 불교·야·유교 문화가 공존하는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있다.

'경북 22개 시군 대표 관광명소'는 주요 관광지들 북부, 중서부, 남부, 동부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kih9@

치킨업계, 빅모델 전면에… ‘내수 수성·해외 진출’ 총력전

BBQ 필릭스 협업 신메뉴 출시 bhc 해외매장 ‘선택과 집중’ 전략 교촌치킨 체형형 프로그램 확대

국내 외식 시장의 포화 상태를 타개하고 수익성을 방어하기 위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시활을 건 마케팅 및 글로벌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다. 주요 업체들은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빅모델을 전면내내세우는 한편, 각기 다른 ‘해외 영도 확장’과 ‘내수 수성’ 전략을 앞세워 돌고구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제너시스BBQ그룹은 글로벌 Z세대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는 K-팝 아티스트를 활용해 해외 현지 마케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BBQ는 최근 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의 멤버 필릭스를 글로벌 새 모델로 발탁했다. 필릭스를 앞세운 필크런치 광고캠페인은 공개 3일 만에 주요 디지털 채널 누적 조회수 600만 회를 돌파했다.

BBQ는 이번 신메뉴를 한국과 미국에 동시 출시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필크런치는 기획 단계부터 해외 소비자를 함께 겨냥한 메뉴로 개발됐으며, 미국 시장 출시를 시작으로 전 세계



제너시스BBQ그룹은 지난 7일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 필릭스와 협업한 신메뉴 ‘필크런치’를 출시했다. /제너시스BBQ그룹

지역별 순차 론칭을 이어갈 예정이다.

실제로 BBQ는 현재 전 세계 57개국에서 약 800개 매장을 운영하며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캐나다 등 북미를 중심으로 중남미, 카리브해, 중국·일본·동남아시아·인도 등 K-푸드 대표 브랜드로서 점점을 넓혀가고 있다.

다이닝브랜드그룹의 bhc는 국내와 해외 시장을 분리한 정교한 투트랙(Two-track)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bhc는 10년간 브랜드를 대표했던 장수 모델 전지현과 황정민의 후임으로 배우 한소희를 발탁했다. 경쟁사들이 해외 팬덤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bhc는 전 세대를 아

우르는 대중성과 화제성을 갖춘 모델을 통해 국내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겠다는 구상이다. bhc 관계자는 “높아진 브랜드 관심을 실제 가맹점 주문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이달 9일 신메뉴 ‘커링클’도 출시했다. 은은한 커리향과 부드러운 크림의 풍미가 어우러진 달콤 매콤 시즈닝 치킨에 새콤달콤한 허니버터요거트 소스를 곁들여 즐기는 메뉴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커리 특유의 이국적인 향미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해외에서는 ‘뿌링클’, ‘맛초킹’ 등 검증된 시그니처 메뉴와 ‘선택과 집중’ 매장 운



bhc는 지난달 ‘쏘이갈릭킹’의 신규 TV 광고(TVC)를 공개했다. /bhc

영을 내세웠다. 최근 미국 워싱턴 D.C. 생활권인 버지니아주 알링턴 볼스톤 지역에 9호점을 오픈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 특성에 맞춰 키오스크 도입과 테이크아웃 중심의 효율적 매장 운영으로 회전율을 높였으며, 지역 특성에 따라 다이닝형과 배달형 매장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있다.

교촌에프앤비(교촌치킨)는 팬덤 마케팅과 함께 K-푸드 체형형 프로그램을 연계하며 아시아 시장 전역 공략에 고삐를 죄고 있다.

교촌치킨의 모델은 배우 변우석이다. 변우석의 두터운 중화권 및 동남아시아 팬덤을 적극 활용해 아시아 시장 내 K-치

킨 선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스타 마케팅에 더해 교촌은 ‘K-미식 문화’를 직접 전파하는 진정성 마케팅도 병행하고 있다. 교촌은 미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의 스타 셰프 및 중국 요리연구가, 해외 파트너사 초청 외국인 관광객 등 총 25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치맥 문화를 즐기는 ‘K-치킨 여행’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교촌 R&D센터’와 경북 구미의 ‘교촌1991 문화거리’ 등을 방문하고, 오산 연수원에서 소스를 한 붓씩 입히는 조리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아울러 ‘대구치맥페스티벌’ 현장을 방문해 한국 특유의 외식 문화를 경험했다.

외식 업계 관계자는 “과거 해외 진출이 단순한 브랜드 홍보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기업의 재무적 상황과 글로벌 확장 방법이 철저히 반영된 정교한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글로벌 스타를 활용한 브랜딩과 현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밀착 운영, 그리고 치맥 문화를 연계한 미식 투어 등은 K-치킨이 단순한 음식을 넘어 글로벌 외식 문화로 인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진단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롯데웰푸드, 인도통합법인 상반기 매출 28% ↑ 나라셀라 “들라스 프레르 와인 만나보세요”

출범 1주년… 실적개선 성공 2032년까지 ‘연 매출 1조’ 목표

롯데웰푸드가 인도 건과·빙과 통합법인 출범 이후 생산·유통 효율화를 앞세워 현지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법인 출범 1주년을 맞은 올해 상반기에는 두 자릿수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며 인도 시장 공략 전략이 성과를 내는 모습이다.

롯데웰푸드는 인도 통합법인 ‘롯데 인디아(LOTTE India)’의 올해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8%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건과와 빙과 사업을 통합한 이후 추진해온 ‘원 인디아(ONE INDIA)’ 전략에 따라 생산과 유통 체계를 효율화한 것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빙과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하며 실적을 이끌었다. 지난해 본격 가동을 시작한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 빙과공장의 생산 안정화로 공급량이 늘어난



롯데웰푸드 인도법인 롯데 인디아 본사 전경

영향이다. 상반기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5% 증가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현지 성수기 수요에 대응했다. 푸네 공장에서는 ‘크런치(Krunch·돼지바)’, ‘수박바’, ‘샤크(Shark·조스바)’ 등 롯데 브랜드 제품 생산도 확대하고 있다.

건과 부문도 전통 유통채널(TT) 판매망 확대에 힘입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회사는 하리아나주 로타공장에 초코파이 생산 4호 라인 가동을 앞두고 있어 생산능력이 추가로 확대될

전망이다.

롯데웰푸드는 인도 통합법인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남부, 북부, 서부를 아우르는 커버리지 통합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물류 및 생산 거점 통합을 통한 효율화 작업을 지속해 수익성 높인다는 방침이다.

제품 차원에서든 빼빼로, 돼지바 등 대표 롯데 브랜드의 시장 경쟁력을 제고해 현지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의 지배력을 높여간다는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롯데 인디아는 2032년까지 ‘연 매출 1조 원’을 목표로 한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통합법인 출범 1주년을 계기로 인도 시장에서의 생산 효율성과 유통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며, “양사의 강점을 결합한 인프라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핵심 브랜드의 도입 확대를 통해 인도 최고의 종합 식품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프랑스 북부 위치… 12종 상품 선봬

나라셀라는 프랑스 북부 론(Rhone) 지역 와이너리 ‘들라스 프레르(Delas Freres)’를 국내에 공식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1835년 설립된 들라스프레르는 프랑스 북부 론 생장드뮤졸에 위치한 와이너리로, 에르미타주(Hermitage), 꼬뜨 로띠(Cote-Rotie), 생조셉(Saint-Joseph) 등 북부 론 주요 산지에서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2018년 HVE(고환경가치) 인증을, 2024년에는 유기농 인증을 획득했다.

나라셀라는 이번 출시를 통해 대표 제품을 포함한 총 12종의 와인을 선보인다. 대표 제품은 ‘꼬뜨 뒤 론 생테스프리 루즈’, ‘꼬뜨 로띠 세노르드 모자몽’, ‘에르미타주 레 베사르’ 등이다. 이 가운데 ‘에르미타주 레 베사르’는 단일 포도밭인 ‘레 베사르(Les Bessards)’에서 수확한 포도로 양조한 와인이다.

제품은 나라셀라 직영 매장인 나라셀라



들라스 프레르.

/나라셀라

리저브와 와인픽스를 비롯해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등 전국 주요 백화점에서 판매된다.

나라셀라 관계자는 “들라스 프레르”는 190년 동안 북부 론의 뛰어난 테루아를 가장 순수하게 표현해 온 와이너리로 루이 로드레(Louis Roederer) 그룹 합류 이후 지속적인 투자와 품질 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공고히 해왔다”며 “이번 출시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프랑스 북부 론 와인의 깊이 있는 매력과 다양한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11번가, ‘마트대전’ 행사

11번가가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생필품 등을 할인 판매하는 월간 장보기 프로모션 ‘마트대전’을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초복(15일)을 맞아 전복, 가지미, 은갈치 등 여름철 보양 먹거리와 가정간편식(HMR)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전남 완도산 활전복과 국내 산 손질 가지미, 제주 은갈치 등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마트대전’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장바구니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CJ온스타일, 26일까지 ‘베이비 키즈페어’

유아동 브랜드·육아 콘텐츠 등 소개

CJ온스타일이 프리미엄 유아동 브랜드와 육아 콘텐츠를 함께 선보이는 ‘베이비 키즈페어’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 자녀에게 집중 투자하는 ‘골드키즈’ 소비 트렌드와 여름방학 시즌에 맞춰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파베이비’, ‘VIP키드 화상영어’, ‘트렉’ 등 약 20개의 프리미엄 유아동 브랜드를 새롭게 선보인다. 행사 기간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 적

립 혜택을 제공하고, 주요 브랜드를 대상으로 카드 할인도 진행한다.

모바일 라이브 방송도 확대 편성한다. 행사 기간 약 20명의 육아 인플루언서가 릴레이 방송을 통해 상품 정보와 육아 경험을 소개한다.

14일에는 크리에이터 ‘다저미네’와 함께 ‘타고가요 캐리어’를 소개하고, 15일에는 ‘은아쌤’의 맘스클래스를 통해 ‘육스포드 리딩트리’를 할인 판매한다. 육아전문 작가 ‘드로잉 오늘’와 협업한 콘텐츠도 CJ온스타일 모바일 앱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bhc

‘커링클’ 출시 이벤트

다이닝브랜드그룹의 치킨 브랜드 bhc가 신메뉴 ‘커링클’ 출시를 기념해 bhc 앱 전용 이벤트 2종을 진행한다.

신메뉴 ‘커링클’은 은은한 커리향과 부드러운 크림의 풍미가 어우러진 달콤 매콤 시즈닝 치킨에 새콤달콤한 허니버터요거트 소스를 곁들여 즐기는 메뉴다.

bhc는 커링클 출시 초반 가장 먼저 신메뉴를 맛보는 고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혜택을 안겨주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

첫 번째 이벤트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커링클 오픈런 찬스’다. 이벤트 기간

동안 bhc 앱에서 커링클을 주문하면 커링클 전용 4000원 할인 쿠폰과 중복 사용 가능한 1000원 할인 쿠폰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기간 내 쿠폰을 2회 이상 사용한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미니언즈 굿즈 폴세트를 증정한다.

두 번째는 오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어지는 ‘커링클 출시 기념 이벤트’다. 해당 기간에는 커링클 전용 4000원 할인 쿠폰이 계속 제공되며, bhc 앱에서 커링클과 뿌링클로 구성된 반반치킨을 2회 이상 주문한 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커링클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커링클과 뿌링클의 서로 다른 매력을 한 번에 즐기면서 특별한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기회다. /신원선 기자

수출 넘어 현지화… K-뷰티, 생산부터 유통까지 직접 구축

코스맥스, 후지신과 합작법인 설립
구다이글로벌, 유통 전문 경영 도입
클리오, 파트너사 인수해 유통망 확보

국내 뷰티 기업들이 일본 화장품 시장에서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K뷰티 제조사와 브랜드, 서비스들은 일본 소비자를 만나는 최종 길목을 확보하려는, 직접 진출하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13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는 생산과 공급을 아우르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다졌다. 코스맥스는 일본 미용 전문 유통사 후지신과 맞춤형 화장품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 '트라이넥스' 설립 계약을 맺었다. 지분율은 코스맥스 51%, 후지신 49%다.

트라이넥스 설립은 코스맥스의 인공지능(AI) 기반 화장품 처방 기술을 해외 시장에 이식하는 첫 사례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진, 데이터 분석, 상품 기획 등 생산 부문은 물론 충전·포장·납품, 피드백 수집 등 화장품 영역 전반에서 현지 사업



지난 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합작법인 '트라이넥스' 설립 계약식에서 엔도 카즈노리 후지신 대표(왼쪽)와 어재선 코스맥스재팬 법인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코스맥스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ODM 방식을 차별화한다. 미용사와 소비자의 신뢰 관계가 강한 일본 미용 시장 특성을 적극 반영해,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구독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파트너사 후지신은 일본 전역 약 2만 개의 미용실(살롱)에 제품을 공급하는 상사인 만큼 코스맥스는 빠른 시장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병주코스맥스비티아이대표는 “신뢰

기반의 일본 미용실이라는 특정 창구에서 축적 가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처방을 지속 개선하고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 이탈리아 등에서도 맞춤형 화장품 사업의 새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지화 흐름은 브랜드 기업들의 성장 전략에도 주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K뷰티 신흥 주자인 구다이글로벌은 올해 들어 브랜드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이어 유통망 확보를 다양화했다. 지난 4월

일본법인명을 구다이글로벌재팬으로 변경하고 유통 전문 경영인 체제까지 도입한 것.

구다이글로벌은 조선미녀, 스킨1004, 스킨푸드 등 '멀티 브랜드'를 보유하는 동시에 일본 유명 오프라인 채널인 앳코스메, 로프트, 플라자 등에 전략적으로 입점하는 '멀티 유통 플랫폼' 구조로 K뷰티 사업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1세대 로드숍 브랜드 클리오의 경우, 일본 내 유통망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 성과를 냈다.

클리오는 2024년 일본 파트너사였던 화장품 판매업체 두원과 수입 대행업체 키와미를 인수하고 일본법인 클리오재팬을 정식 공개했다. 일본 화장품 시장의 도소매 유통 노하우를 내재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일본은 클리오의 해외 매출 1위 시장이다. 클리오의 일본 매출은 2023년 350억원, 2024년 398억원, 2025년에도 38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해당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4~26% 수준이다.

K뷰티 일본 영토 확장은 바르는 화장품에만 머물지 않는다. K미용의료 플랫

폼 '강남언니'는 일본 로컬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남언니는 미용의료를 목적으로 방한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시술 탐색, 비교, 병원 예약 등의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갖췄다. 2019년 11월 일본에 진출한 후 일본 사용자는 한국과 일본의 피부과 및 성형외과 5000 곳의 시술가격 및 후기를 탐색할 수 있는 규모로 커졌다. 지난해에만 55만 명의 일본 유저가 강남언니 앱을 통해 병원을 예약했다.

강남언니 임현근 총괄이사는 “강남언니 글로벌 브랜드 명칭을 '언니'로 통일하는 등 플랫폼 신뢰도와 사용자 경험에 집중함으로써 K미용의료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뷰티 스타트업 관계자는 “화장품은 소비재이다 보니 국내외 반짝 유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지 인프라 구축으로 급변하는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국내 뷰티 브랜드가 보다 통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지엔티파마, 반려견 치매약 해외진출 본격도

크노엘 애니멀 헬스와 규제지원 계약
2028년까지 美·유럽 허가 획득 목표

신약개발 기업 지엔티파마가 글로벌 동물약품 시장 진출 전략에 박차를 가한다.

지엔티파마가 글로벌 동물약품 인허가 전문기업 크노엘 애니멀 헬스와 반려견 인지기능장애(치매) 치료제 '제다큐어'의 미국·유럽 허가 및 개발을 위한 규제지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크노엘 애니멀 헬스는 미국 식품의약품(FDA) 산하 수의약센터(CVM), 유럽 의약품청(EMA)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규제 및 인허가 전략을 총괄 지원하게 됐다. 오는 12월까지 ▲글로벌 허가 전략 수립 ▲FDA 및 EMA 사전 협의 ▲화학제조 및 품질관리(CMC) ▲허가자료 작성 ▲규제기관 대응 ▲허가 가속화 검토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엔티파마는 제다큐어 글로벌



반려견 치매 치료제 '제다큐어'

별 상용화를 위한 생산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일랜드 동물약품 전문 기업 사넬 파마와 협력해 FDA와 EMA가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형 개발, 공정 도입, 품질관리 시스템 고도화, CMC 자료 준비 등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양사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조 시설 구축, 안정성 시험 등 주요 일정을 점검했고 오는 2028년까지 미국과 유럽 허가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제다큐어는 이중 표적 기전을 갖춘 계열 열 내 최초 혁신신약이다. 증상개선 및 질 환치료 약효를 동시 구현한다.

2021년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초로 허가를 받았고 국내 상용화를 통해 안전성과 시장성을 입증했다. 현재 국내 2300여개 동물병원에서 처방되고 있으며 매년 30~40%의 매출 증가세를 기록해 왔다. 올해 상반기 매출로는 약 10억원을 달성했다.

지엔티파마는 제다큐어의 미국과 유럽 허가를 발판으로 일본, 중국 등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광병주 지엔티파마 대표는 “이번 크노엘과의 계약 체결은 제다큐어의 글로벌 상용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크노엘 및 사넬파마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미국, 유럽, 아시아 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제다큐어를 세계적인 반려동물 치매 치료제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GC메디아이, 병원 맞춤 금융시스템 구축

라젠카AI와 '메디바로' 업무 협력

GC메디아이가 헬스케어 핀테크 기업 라젠카AI와 '메디바로' 협력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라젠카AI는 오는 15일 메디바로를 정식 출시하며 양사는 공동 마케팅, 데이터 연동 등을 추진한다.

메디바로는 병·의원 및 약국 맞춤형 운영자금 확보 서비스다. GC메디아이의 전자무기기록(EMR) 시스템 의사상,유판 등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메디바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GC메디아이는 신청 기관의 건강보험 급여 청구 데이터를 메디바로 시스템에 연동한다.

이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용 가능 한도가 정해지고 한도 내에서



GC메디아이가 헬스케어 핀테크 기업 라젠카AI와 '메디바로' 협력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필요한 만큼의 운영자금을 보험 청구대금이 정산되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다.

자금 조달은 KB국민카드가 맡는다. GC메디아이는 전국 의료 현장에서 이러한 디지털 운영체제를 적극 도입해 의료진은 진료와 의료기관 운영에만 집중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동국제약 센텔리안24 美 아마존 '최고 실적'

매출 전년대비 900% 이상 증가

동국제약의 데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가 미국 뷰티 시장에서 K뷰티 브랜드 입지를 넓혔다.

동국제약은 지난달 23~26일(현지 시간) 미국 유명 이커머스 아마존이 진행한 프라이미 데이에서 센텔리안24가 역대 최고 프라이미 데이 매출을 올렸다고 13일 밝혔다.

프라이미 데이는 매년 상반기 아마존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대규모 할인 행사다. 동국제약에 따르면 올해 센텔리안24의 프라이미 데이 매출은 전년 대비 90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주요 제품들이 베스트 셀러 순위에 들면서 브랜드 실적을 견인했다.

/이청하 기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284개 점포 정상 영업

상품 공급률 98% 회복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전국 284개 운영 점포의 정상营业을 이어가며 상품 공급과 서비스 운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새 출발 이후 전국 모든 점포가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신선식품과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상품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

매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9일까지 17일간의 일평균 매출은 지난달 1~22일과 비교해 약 35% 증가했으며, 5월 일평균 대비로는 약 55% 늘었다.

상품 공급도 정상화되고 있다. 신선식품(농·수·축산물) 카테고리의 발주 대비 납품률은 98% 수준까지 회복했으며, 회사는 운영 품목을 지속 확대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근거리 배달 서비스인 퀵커머스도 정상 운영 중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서비스 운영을 고도화해 소비자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협력사와의 공급망 운영도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주요 협력사와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상품 공급 체계를 유지하고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종근당바이오, 티엠버스주 임상 노하우 공유

심포지엄 열고 의료진과 소통

종근당바이오가 보툴리눔 독신 '티엠버스주' 출시 1주년을 맞은 가운데, 국내 의료진들과 적극 소통하며 브랜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종근당바이오는 지난 11일 서울 조선펠리스 강남에서 '티엠버스주'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티엠버스주는 독일 기관의 독점 균주를 기반으로 생산한 신균주 독신이다.

특히 사람혈청알부민(HSA) 대신 비동물성 부형제를 사용해 혈액 유래 병원체의 감염 우려를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또 동물 유래 성분을 철저히 배제한 비동물성(비건) 공정을 도입해 보툴리눔 독신 제제로는 세계 최초로 인도네시아 할랄제품 보증청에서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안전한 독신 시술과 제품 선택의 새로운 기준'을 주제로 열려 티엠버스주에 대한 임상 사례와 전문가들의 최신 지견을 다뤘다.

고익수성형외과 고수익 원장은 보툴리

눔 독신의 안전한 시술법과 제품 선택 기준을 발표했다.

고 원장은 “국내 보툴리눔 독신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의료진과 환자 모두 제품 선택에 있어 안전성과 투명성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며 “티엠버스주는 HSA-Free 제형과 독일 독점 균주, 할랄 인증이라는 명확한 차별점으로 시장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L-히스티딘 함유로 항산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주름 개선을 넘어 피부 건강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급 시술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잇츠미의원 세종점 배경태 원장은 티엠버스주를 활용한 1년간의 시술 노하우를 공유했다. 미호의원 박신혜 원장은 티엠버스주와의 다양한 복합 시술 사례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종근당바이오는 오는 8월 초 '티엠버스주 200유닛'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www.news1.com



뉴시스는 대한민국 뉴스의 허브(Hub)입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주요신문과 포털·인터넷 매체 등 수많은 고객사가 뉴시스와 손을 잡고 뉴시스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시스가 전국 취재망을 통해 24시간 생산한 뉴스는 신문·잡지·인터넷 매체부터 정부기관 및 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뉴시스는 하루 평균 3000여 개 기사와 사진을 제공합니다



출고기사. 1500여개



사진기사. 1500여개

뉴시스는 젊습니다

생각이 젊고 행동이 젊은 뉴시스!

시장독점에 대항해 설립된 뉴시스는 좀 더 능동적, 좀 더 적극적, 좀 더 공격적으로 세상을 바꿔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열전 돌입

교보생명은 지난 9일 충북 제천실내체육관에서 '제42회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개막식을 열고 한 달간의 열전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초등학교 선수 5000여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체조, 육상, 유도, 테니스, 빙상, 탁구, 수영 등 7개 기초종목에서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겨루며 미래 스포츠 스타를 향한 꿈을 키운다.

/교보생명



신한장학재단, 장학생 네트워크 강화

신한장학재단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경기 용인 신한은행 블루캠퍼스에서 장학생, 졸업생, 재단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신한장학캠프'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장학생 간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프는 ▲신한 리더 및 졸업 장학생 멘토링 ▲행사 특강 ▲팀별 협력 활동 등으로 진행됐다.

/신한장학재단



소공연, 베트남대사관과 양국 소상공인 협력 맞춘

소상공인연합회가 주한베트남대사관과 손잡고 한-베 양국 소상공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나선다. 소공연은 주한베트남대사관과 '한-베트남 공동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과 베트남 소상공인의 공동 발전을 위한 기술, 정보, 판로 등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연합회



한식진흥원, 이탈리아에 '전통 장' 문화 전파

한식진흥원이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 이탈리아 국제요리학교 ALMA와 '3자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 또 지난달 중순 현지 최고의 국제 요리학교인 ALMA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통 장'을 활용한 한식 상차림 강의를 실시했다. 이 행사는 이탈리아 내 미래 조리장들에게 한식의 핵심인 '전통 장' 문화를 소개하고, 향후 ALMA 내 정규 한식 교육 과정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한식진흥원

인사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장 문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국립국어원장 이관규 고려대 교수
◆행정안전부 ◇실장급 전보 ◇참여혁신조직실장 노홍석 ◇과장급 전보 △안전개선과장 민경조

부음 ▲서정웅(85)씨 별세, 서상록·서용록·서현주·서현경씨 부친상, 김명현(범한그룹 홍보실장·전 경남신문 편집국장)·최지옥씨 장인상=13일, 부산시 서구 동대로 6 동아대학교병원장제식장 2층 VIP실, 발인 15일 오전 8시30분, 장지 부산영락공원. 051-256-7070~3

현대자동차, TCR 월드투어 시즌 세 번째 우승컵

엘란트라 N TCR 4라운드 우승
미첼리즈 결승 1위·드라이버 3위
소속팀 424점·종합 2위 유지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최정상급 투어링카 대회 '2026 TCR 월드투어'에서 시즌 세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TCR 월드투어(TCR World Tour)는 WTCR(World Touring Car Cup)의 뒤를 잇는 새로운 투어링카 레이스 시리즈로 양산차 기반의 순수 기계 성능과 고성능 기술력을 증명하는 무대다.

현대차는 고성능 경주차 '더 뉴 엘란트라 N TCR(국내명: 더 뉴 아반떼 N TCR)'이 글로벌 투어링카 대회 '2026 TCR 월드투어' 4라운드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11일과 12일 포르투갈 빌라 레알 인



7월 11일~12일(현지시간) 열린 '2026 TCR 월드투어' 4라운드 포르투갈 대회에서 현대자동차 '더 뉴 엘란트라 N TCR(국내명: 더 뉴 아반떼 N TCR)'이 주행하는 모습. /현대차

테르나시오나우서킷에서 열린 대회에서 'BRC 현대 N 스킨드라 코르세' 팀의 노버트 미첼리즈 선수는 두번째 결승 레이스 1위에 오르며 팀에 시즌 세

번째 우승컵을 안겼다.

미첼리즈는 라운드에서 총 48포인트를 얻어 드라이버 순위 3위를 유지했다. 함께 출전한 미켈 아스코나 선수

는 첫 번째 결승 2위 등으로 총 44포인트를 획득해 드라이버 순위 2위를 지켰다. 이로써 소속 팀은 총 424포인트로 팀 부문 종합 2위를 이어갔다.

대회가 치러진 빌라 레알 서킷은 코스 폭이 좁고 런오프 구역이 제한돼 세계 최고 난이도의 스트리트 코스로 꼽힌다.

현대차 관계자는 "과거 우승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최고 결과를 내 기쁘다"며 "남은 시즌도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총 8라운드로 진행되는 TCR 월드투어의 차기 5라운드 경기는 오는 10월 2~4일 한국 강원도 인제 스피드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롯데백, 유네스코 세계유산기금 모금 동참

저스피스재단과 공식 파트너 협약
부산 세계유산위서 프로그램 운영

롯데백화점이 저스피스재단이 추진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기금 모금 캠페인에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추진된다. 저스피스재단은 글로벌 아티스트 지드래곤(G-DRAGON)의 저작권 기부를 바탕으로 설립된 공익 재단으로, 예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문화예술 인재 양성 등 다양한 공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10일 저스피스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세계유산기금 모금 캠페인의 공식 파트너로 참여하기로 했다. 양측은 세계유산 보전의 가치와 세계유산기금의 의미를 알리고 문화유산 보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양측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저스피스재단 사옥에서 열린 롯데백화점-저스피스재단 업무협약식(MOU) 모습. 박상우 롯데백화점 마케팅 부부장(왼쪽), 오희영 저스피스재단 대표(오른쪽). /롯데쇼핑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관 문화행사에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행사장 부스를 방문한 고객에게는 유네스코 한정판 디자인을 적용한 교통카드를 증정하며, 롯데백화점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쇼핑뉴스'를 통해 세계유산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서현 기자 seoh@

“헌혈하고 타이어 렌탈 혜택 받으세요”

넥센타이어, 내달 최대 6만원 제공

넥센타이어가 헌혈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헌혈자에게 타이어 렌탈 혜택을 제공하는 고객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한다.

넥센타이어는 여름철 타이어 교체 수요를 앞둔 고객의 헌혈 참여를 유도해 헌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헌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넥센타이어는 행사 기간 헌혈에 참여하고 같은 기간 타이어 렌탈 서비스 '넥스트레벨' 예약과 장착을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주유소,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합 상품권을 지급한다. 상품권 액수는 타이어 2본 장착 시 3만 원, 타이어 4본 장착 시 6만 원이다.

넥스트레벨은 넥센타이어가 2015년 국내 최초로 선보인 타이어 렌탈 서비스로, 타이어 교체 비용을 최대 36개월

까지 분할 결제할 수 있어 초기 비용 부담이 적다. 렌탈 기간 고객 과실로 인한 타이어 파손도 무상으로 교체해 주며, 월 1000원 가량을 추가하면 조기 마모 보증과 타이어 얼라인먼트(정렬) 1회도 제공된다.

앞서 넥센타이어는 지난달 14일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헌혈 문화 확산과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헌혈자 감소에 따른 혈액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국내 생산기지와 연구개발(R&D) 센터 등에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에 힘입어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SK케미칼, 재난 이재민 긴급구호 지원

임직원 참여해 키트 400개 제작

SK케미칼이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의 초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구호 키트 제작에 나섰다.

SK케미칼은 경기 성남시 판교 본사에서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6 밸류데이(VALUE Day)' 긴급구호 키트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임직원들은 재난 발생 초기 이재민의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과 위생·응급·안전용품, 생활필수품, 습기제거제 등 30종의 물품을 담아 긴급구호 키트 400개를 만들었다.

완성된 키트는 사회공헌 비정부가

구(NGO) 지파운데이션에 전달돼 경기 여주시 물류창고에서 보관·관리된다. 향후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3일 이내 배분될 예정이다. SK케미칼은 앞으로도 기후위기와 재난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을 발굴하고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성석 SK케미칼 경영지원본부장은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재난을 비롯한 사회적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회사와 구성원이 사회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함께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제2회 코웨이 컵 학교스포츠클럽 휠체어농구페스티벌'에서 우승한 장곡고 학생들이 우승컵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웨이

코웨이, 청소년 휠체어농구 활성화 앞장

수도권 8개 고교 통합스포츠클럽 대회

코웨이가 장애인 농구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나섰다.

코웨이는 지난 11일 경기 남양주시 포라운드에서 제2회 코웨이컵 학교스포츠클럽 휠체어농구 페스티벌(코웨이컵)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인 코웨이컵은 코웨이와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서울시장애인농구협회가 공동 주최 주관하는 청소년 통합스포츠 체험의 장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규모를 확대해 수도권 8개 고등학교의 장애인·비장애인 학생들이 한 팀으로 각 학교를 대표해 출전했다.

이날 대회에는 경기도, 경성고, 세종고, 우신고, 이천고, 이포고, 장곡고, 한빛누리고 8개 고등학교가 참가해 치열한 조별 예선 풀리그를 펼쳤다. 이어 진행된 결승전에서는 지난해 준우승을 차지한 장곡고가 우신고를 15대 11로 꺾고 첫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코웨이는 이번 대회를 위해 각 학교에 코웨이 블루휠스 선수의 전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휠체어농구 교실'을 지원하고, 각 팀의 개성을 담은 유니폼을 제공했다. 심판 및 운영에는 코웨이 블루휠스 선수들이 직접 참여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휠체어농구에 대한 이해와 경기 완성도를 높였다.

/김승호 기자 bada@



건강창업의 새로운 기준!

대한민국 유통 명가 햐터그룹이 당신의 '성공창업'을 지원합니다.

30년 유통 노하우와 브레인TV 홍보 지원으로 검증된 건강 브랜드,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파트너 모집

불황에도 꺾이지 않는 **30년 건강 비즈니스**,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 자사 TV 방송국 광고 지원
브레인TV 채널 노출을 통한 강력한 마케팅

✓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명품 홍삼, 건강식품, 건강용품, 의료기기 등
검증된 라인업

✓ 유연한 창업 모델
무점포부터 대형 매장까지 맞춤형 컨설팅

✓ **최저 창업 비용 398만원**
부담 없고 합리적인 창업비용으로 실질적인 기회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30년 노하우를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상담 문의 환영 1522-7585

창업상담 방문을 하시는 모든 분께

- 무료 창업 컨설팅 제공
- 창업가이드북 증정
- 홍삼선물세트 198,000원 상당 증정

QR 스캔



대한홍삼(주)

BH 대한홍삼[주]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하차 ▶ 1호선 11번 출구 / 7호선 9번 출구)

Since 1996
햐터그룹
Haetter Group

보완수사권, 누구를 위해 없애는가



기고
안동현
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

지난달 광주에서 여고생이 살해됐다. 초등 수사를 맡은 경찰이 피의자 아버지인 현직 경찰 간부에게 수사 정보를 흘리고 증거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교롭게도 이걸 밝혀낸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다. 그런데 국회는 지금 바로 그 권한을 없애는 법안을 밀고 있다.

여당은 지난 9일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조문을 몽땅 들어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10월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에 요구만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찰이 넘긴 기록에 구멍이 보여도 검사가 매울 길이 사라진다. 생후 4개월 아기가 숨진 사건에서 친모의 살인 고의를 밝혀낸 것도, 장애인 시설장의 추가 성범죄를 캐낸 것도 보완수사였다. 그 외 다양한 사례로 미루어볼 때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서민, 제 손으로 증거를 모을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해서 보완수사권은 존치되어야 한다.

그러니 묻게 된다. 이 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국민이 검찰에 분노한 건 표적 수사였고

제 식구 감싸기였지, 강력 사건 기록을 다시 들추는 일이 아니었다. 이 법안을 검찰개혁이라 부르기 어려운 이유다. 명분은 정치검찰을 잡자는 것인데, 실제로 잃는 쪽은 피해자다.

개정안에 대안이 없는 건 아니다. 경찰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하고 제재 조항도 붙였다. 그래도 구멍을 발견한 사람이 직접 못매우고 남에게 시켜야 하는 구조는 그대로다. 요구하고 기다리는 사이 사건은 흐려진다. 광주처럼 경찰 내부가 얽힌 사건이면 더하다. 유착을 의심받는 조직에 “다시 수사해 보라”고 해서 진실이 나오리라 믿는다면 순진한 것이다.

이미 한번 겪은 일이기도 하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때도 수사 지연과 부실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개혁의 속도에 묻혔다. 그 뒤 5년, 고소 사건 하나 처리에 1년을 넘기는 일이 드물지 않게 됐다. 제도를 바꾼 쪽은 성과를 말하지만, 기다림의 비용은 사건 당사자들이 치렀다. 비슷한 우려가 있음에도 더 큰 규모로, 더 짧은 논의 끝에 추진하자는 것이 지금의 개정안이다.

개인만의 기우라면 좋겠다. 그런데 경고는 폐지를 주장해 온 쪽에서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당 의원을 앞에서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힘없는 서민이 경찰

의 부실 수사로 피해를 입게 된다”고 했다. 민변 설문에서도 회원 3명 중 2명이 남기자고 답했다. 법을 집행할 장관과 개혁을 외치는 단체가 나란히 머뭇거리는 법안이라면, 멈추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도 ‘7월 17일 이전 처리’라는 민주당 내 일부의 자체적인 주장도 있었고, 전당대회 전에 끝내지는 말까지 나오며, 최종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일인 8월 17일 이전에 처리할 방침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그렇다면 야당이 해야 할 것은 정해졌다. 국민의힘은 폐지에 맞서 대안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거기서 멈출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만큼 싸웠으면 신중한 논의가 먼저라는 상식을 관철하는 것, 그것이 지금 야당이 해야 할 견제다.

최소한 성범죄, 아동 학대처럼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영역만이라도 보완 수사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시한 없이 다시 논의하는 방법론도 나온다. 여당 안에서도 “결론을 정해놓은 숙의가 아니라 해법을 찾아가는 숙의”를 하자는 말이 나왔다.

정해진 날에 맞춰 통과시킨다고 법이 좋아지지 않는다. 입법이 할 일은 피해자가 나왔을 때 국가가 손쓸 방법을 남겨두는 것이다. 국민에게는 속도보다 진정한 정의가 필요하다.

/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

영화관 ‘피땀눈물’ 누가 보상하나



기자수첩
지시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매주 극장을 찾는 관객의 발걸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응원이 담겨 있다. 내가 낸 티켓 값이 좋은 영화를 만든 제작진과 동네 극장의 내일을 지탱할 것이라는 믿음, 이른바 ‘문화적 가치 소비’다. 이 단단한 신뢰의 고리가 최근 대형 멀티플렉스의 재무 위기로 인해 단번에 끊어질 위기에 놓였다.

최근 회생 절차에 돌입한 메가박스중앙이 배급사들에 공문을 보내 “6월 14일 이전 미지급 정산금은 모두 회생채권으로 묶여 추후 변제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사실상 부금 지급 동결 선언이다. 정산 구조상 당장 7월 중순부터 5월 상영작들의 대금이 막힌다. 이화배 배급사연대 대표는 “국내 배급사들의 묶인 채권

만약 150억 원”이라며 “자금력이 없는 100여 개 중소 배급사들은 당장 월세와 직원 월급도 못 줄 처지”라고 토로했다.

여기에 메가박스 고유의 위탁상영관 구조가 폭탄을 키웠다. 위탁점 비중이 높은 메가박스 특성상, 본사 전산망을 공유하다 보니 통신사 할인이나 간편결제 대금이 본사에 묶여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위탁관 비대위가 집계한 미수금만 70억~80억 원 선이다. 특히 법원이 ‘직영점’ 예매 대금과 신작 ‘토이스토리 5’의 부금 지급만 우선 허가하면서, 차별 대우를 받게 된 위탁관들의 분노가 빔발치고 있다.

영화계의 정산 시스템은 도미노식 구조다. 극장이 배급사에 돈을 주면 제작사, 홍보사를 거쳐 감독과 현장 스태프 임금, 기술 용역비로 청산된다. 극장 한 곳의 매비가 산업 전체의 율스톱으로 이어지는 이유다. 이에 제작자협회 등 15개 단체가 연대한 ‘영화인연

대’는 성명을 통해 메가박스의 정산채권은 생태계의 목숨줄이 걸린 상거래 채권이라며, 영세 영화사와 위탁업자를 보호할 회생 절차 내 특별 구제 방안을 촉구했다.

법원과 채권단은 이 정산금을 일반 금융채권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 회생법상 중소 협력업체의 파산을 막기 위해 법원 허가하에 조기 변제를 허용하는 제도가 엄연히 존재한다. 베팅 끝에 몰린 소액 채권자들을 위한 신속한 구제책이 절실하다.

정부의 태도 역시 아쉽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를 민간 기업의 단순 잔혹사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피해 기업을 위한 긴급 지원과 함께 ‘관객 예치금 보호’ 같은 제도적 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 대기업의 재무 실패가 왜 애꿎은 창작자들과 지역 위탁 극장의 회생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이제는 정부와 사법부의 책임 있는 공적 대응이 나와야 할 때다.

/tree6834@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4일 (음 6월 1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무턱대고 일을 맡았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합니다. **60년생** 일처리를 확실히 하세요. **72년생** 의리와 실속의 선택에서 괴롭겠습니다. **84년생** 시간을 두고 좀 더 신중하세요.



49년생 가족들의 불만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61년생**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73년생** 골치 아팠던 애정관계가 해결됩니다. **85년생** 오늘 떠나는 여행은 너무나 길합니다.



50년생 미래를 생각해 일을 추진하세요. **62년생** 매사에 필요한 힘을 충분히 비축하세요. **74년생** 방해자로 인해 사업에 다소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86년생** 자신의 분수를 잘 알아야 흥함을 만끽합니다.



51년생 말을 삼가고 음식을 조심하세요. **63년생** 도덕을 확실히 지켜 나가야 합니다. **75년생** 어려운 상황이니 마음을 편히 해야 이롭습니다. **87년생** 난폭한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52년생 이성과 지혜를 모아 행동해야 합니다. **64년생** 현상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76년생** 어려움이 겹치니 때를 기다려 보세요. **88년생** 뒷사람의 조언을 듣고 행동해야 합니다.



53년생 마음을 비우고 누구에게나 정직해야 합니다. **65년생** 놀자는 생각이 들겠지만 참아야 합니다. **77년생** 헛된 행동은 나중에 후회할 것입니다. **89년생** 사업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54년생 뜻밖에 큰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66년생** 언제나 정당한 행동을 하도록 하세요. **78년생** 승진할 수 있는 좋은 운이 찾아옵니다. **90년생** 뜻밖의 이성과 깊은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55년생 지금까지 평안했지만 곧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67년생** 이성과의 관계를 더욱 조심하세요. **79년생** 평소보다 건강을 각별히 조심하세요. **91년생** 지금의 현 위치에서 만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6년생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성취됩니다. **68년생** 절실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80년생** 아무리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세요. **92년생**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차분히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57년생 적당한 일 처리는 화를 부릅니다. **69년생** 성직자의 길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81년생** 일에 있어 더욱 철저하고 꼼꼼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93년생** 차분히 기다리면 좋은 운이 찾아옵니다.



58년생 선불리 행동하면 어려움이 닥칩니다. **70년생**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 길합니다. **82년생** 남을 위해 봉사하세요. **94년생** 열심히 하면 반드시 좋은 소식을 얻을 것입니다.



59년생 자신의 능력을 알아줄 소중한 귀인을 만납니다. **71년생** 금전 문제로 서로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83년생** 조금해하지 말고 침착하게 기다려 보세요. **95년생** 전성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회의四季

모방이 공부

얼마 전 중국 병법 36계중 하나인 ‘차도살인’(借刀殺人)을 언급한 적이 있다.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여 ‘자기 힘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외부의 힘을 활용해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 말을 다른 뜻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데, 결국 모방의 묘를 느끼게 한다. ‘창작은 모방’이란 말도 있지 않은가? 푸른 하늘을 보면서 시심을 일깨우는 사람들도 있고 흐르는 물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는 이들도 많다. 있는 현상과 상황에 대한 그 순간의 판단과 느낌을 누군가는 예술로 승화시키고 누군가는 마음이 깨어나서 자타이리의 결과를 만들어 낸다. 운명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타고난 사주팔자가 고 정적이어서 일이 잘 안 풀리면 운명 탓으로 돌리고 만다. 운명과 숙명은 타고난 기운에 머물러 그치고 만다면 숙명이 된다.

애초의 타고난 에너지의 특성과 흐름을 알아서 이에 맞게 나아가고 머무르며 때로는 피하고 때로는 더욱 분발하여 좋은 기운은 발하게 하고 흉한 기운은 피하는 노력을 하여 피흉취길을 극대화하지는 것이 명리학의 목표다. 사실 말이 쉽지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안 좋은 운기가 들어올 때는 희안하게도 몸과 마음이 쳐지고 또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예상과는 다른 경우가 많다. 반대로 운기가 좋게 흐를 때는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결과가 흡족하다. 맞는 얘기다. 전생부터의 쌓은 복과 업력대로만 살 때 일어나는 길흥의 흐름이 바로 내가 받아 태어난 코드인 사주팔자대로 살아지는 지도다. 인간은 산에도 길을 내고 터널을 뚫어 길을 단축하고 고생을 줄이지 않는가? 운명도 타고난 지도대로만 살면 숙명이 되고, 그 지도의 지형을 바꾸는 노력을 하면 운명, 즉 움직여서 바꿀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다. 우선은 하심(下心)이다. 기도를 통한 발원도 하심의 또 하나의 실천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5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56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작출판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스도쿠3650

결란스도쿠11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4				3	7		5
	7							6 1
7		8		3		4		
4			3		7			
		1				5		
			8		9			4
		2		4		6		3
8	6						4	
1		3	4				5	7

2					1		8	7
8		9		6				
		8	2		9	5	4	
4		3				7		
	9						5	
		2				8		4
	8	7	4		3	1		
				5		4		3
1	4		3					8

직업계고 82개교, 117개 학과 개편… AI 교과반영 6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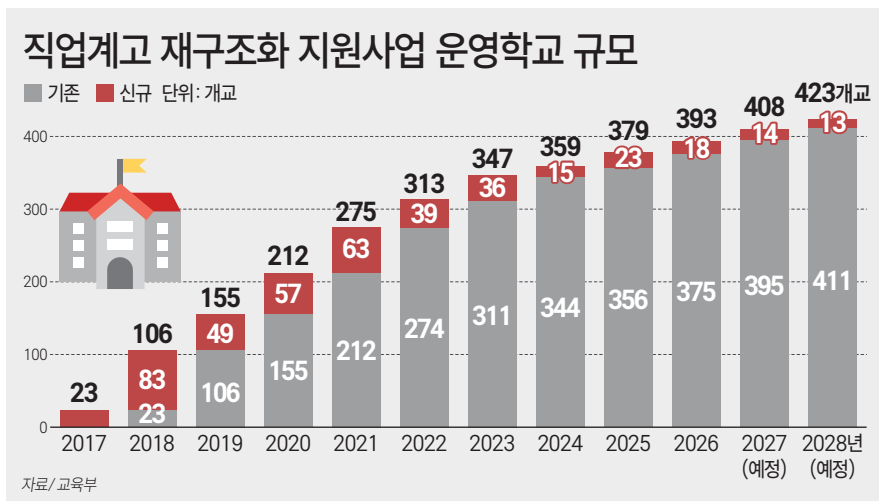
교육부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 디지털 전환 대응 중심 개편 초점 AI·SW 분야 ‘최다’… 69개 학과

2028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
학급 당 3.7억 보통교부금 지원

교육부가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로봇 등 산업 수요에 맞춰 직업계고 82개교, 117개 학과의 개편을 지원한다. 선정 학과의 67.5%는 교육과정에서 AI 관련 교과목을 포함했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사업에는 직업계고 87개교, 133개 학과가 신청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82개교, 117개 학과가 선정됐다.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기존 학과를 산업구조와 인력 수요에 맞게 개편하는 사업이다. 경쟁력이 낮아진 학과를 개편하거나 수요가 높은 학과를 증설하고, 산업 변화에 맞춰 교육과정을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자과를반도체시스템과나스마트소프트웨어과로 바꾸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440개교, 1247개 학과의 개편을 지원했다. 매년 약 100개 학과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2026년 기준 전국 직업계고에서 운영되는 학과는 약 2500개다.

올해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사업 유형은 신산업·신

기술 및 지역전략·특화산업 분야와 학교 자체 발전 분야로 나뉜다.

분야별로는 AI·SW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가 69개 학과로 가장 많았다. 모빌리티와 바이오 등 지역전략·특화산업 분야에서는 23개 학과가 선정됐다. 학생 수요와 학교 여건 등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학과를 개편하는 학교 자체 발전 분야에서는 25개 학과가 선정됐다. 올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학급 증설 대상으로 선정된 학

과는 없었다.

올해 선정된 117개 학과 가운데 79개 학과가 AI 관련 교과목을 교육과정 개편안에 반영했다. 비율은 67.5%로 2024년 31.3%, 2025년 48.9%에서 계속 높아졌다.

성남테크노대학교는 정보보안과를 AI 사이버보안과로 개편한다. AI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관련 교육을 추가해 보안 분야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선정 학과를 교과군별로 보면 기계 분야가 21.4%로 가장 많았다. 경영·금융과 문화·예술·디자인·방송이 각각 12.8%, 전기·전자 11.1%로 뒤를 이었다.

선정 학교는 약 1년간 교육과정과 실습 환경을 정비한 뒤 2028학년도부터 개편 학과 신입생을 모집한다. 개편 학과가 운영되는 직업계고는 2028년 전체 직업계고의 75.9%인 423개교로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과 개편 학급당 약 3억7500만원의 보통교부금을 지원한다. 학급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학급당 2억2500만원을 지원한다. 학교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원 연수, 기

재 구입과 실습실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선정 학과에는 신입생 모집 전부터 첫 졸업생 배출 때까지 산업계 전문가의 컨설팅도 제공된다. 선정 학과 교원을 대상으로 산업 현장 탐방을 지원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별 교원 교류회도 운영한다. 교류회에서는 기존 학과 개편 학교 방문, 우수 사례 발표, 교원 토론과 전문가 강의 등을 진행한다.

교육부는 사업 진행 상황과 교육 성과 등을 점검해 이후 학과 개편 사업에 반영하고, 분야별 우수 사례를 다른 직업계고에 공유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과 명칭을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과정과 실습 환경을 함께 점검하겠다”며 “개편 학과의 신입생 충원과 졸업생 취업 성과까지 지속적으로 살펴 지원 방식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4년내 초교 95% 아동보호구역 지정

서울시교육청 아동보호구역 계획
현재 117개교서 576개교 이상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아동보호구역 지정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단계적으로 지정을 확대해 2029년까지 전체 초등학교의 95% 이상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 등하굣길 안전망 구축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발생한 미성년자

악취·유인 사건 이후 학생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교육부·경찰청 합동으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아동보호구역 확대와 CCTV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울지역 초등학교 606곳 가운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는 117곳(19.3%)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별 안전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아직 지정되지 않은 489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정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연도별로 지정 학교를 확대해 올해 152개교(25%), 2027년 243개

교(40%), 2028년 425개교(70%), 2029년에는 576개교 이상(95%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25개 자치구 및 경찰과 협의를 추진하고, 경찰의 아동범죄 발생 현황과 범죄 우려 지역 조사 결과를 반영해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순찰 강화를 추진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의 주요 생활공간은 학교 안뿐 아니라 등하굣길과 학교 주변 생활권까지 이어진다”며 “아동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학교 안팎을 아우르는 촘촘한 학생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경기도지방정원 ‘새로숲’ 브랜드 공개

총사업비 989억, 내년 12월 준공 목표

경기도가 안산시 시화매립지에 조성 중인 경기도지방정원 ‘새로숲’의 대표 마크와 슬로건을 공개하며 경기도를 대표하는 정원 브랜드 육성에 나섰다.

경기도는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일원에 조성 중인 경기도지방정원 ‘새로숲’의 대표 마크와 슬로건인 ‘버려진 땅, 다시 피어나다’를 공개하고, 현장 안내판과 홍보물, 누리집, 정원 안내체계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새로숲’은 ‘새로운 숲’과 다시 태어나는 ‘자연’이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으로, 과거 쓰레기와 오염의 공간이었던 시화매립지를 생태문화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경기도 대표 정원 조성사업이다.

도는 총사업비 989억원을 투입해 45만㎡ 규모의 경기도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대표 마크는 나비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매립지에서 정원으로 변화하는 새로숲의 재생과 회복, 자연의 순환성을 상징하며, 나비가 꽃과 숲을 이어주듯 도시와 자연, 사람과 생태를 연결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주요 슬로건은 ‘버려진 땅, 다시 피어나다’, ‘경기도에 새로 핀 정원, 새로숲’,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 등이다. 과거 매립지가 도민의 일상 속 정원으로 다시 태어나 생태·문화·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변화하는 가치를 표현했다.

경기도는 대표 마크를 각종 홍보물과 안내시설 등에 순차적으로 적용해 도민과의 접점을 넓히고, 새로숲을 경기도 정원문화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새로숲 조성사업은 2017년부터 행정절차와 설계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7월 착공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파주시, 임진각 평화곤돌라 스카이워크 착공… 35.7억 투입

상부정류장~캠프그리브스 보행구간 급경사 개선… 무장애 보행환경 조성

파주시가 임진각 평화곤돌라 상부정류장과 캠프그리브스를 잇는 보행 구간 개선 공사에 들어갔다.

시는 DMZ 평화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임진각 평화곤돌라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진각 평화곤돌라 상부정류장에서 캠프그리브스로 이어지는 급경사 보행 구간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휠체어 이용자와 노약자 등 보행약자를 포함한 관광객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무장애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스카이워크 조감도.

새로 조성되는 스카이워크에는 관광객 편의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디엠피(DMZ) 벤치’와 ‘평화의 계단’ 등 휴영 구역, 주변 경관을 볼 수 있는 전망·휴게 공간,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야외무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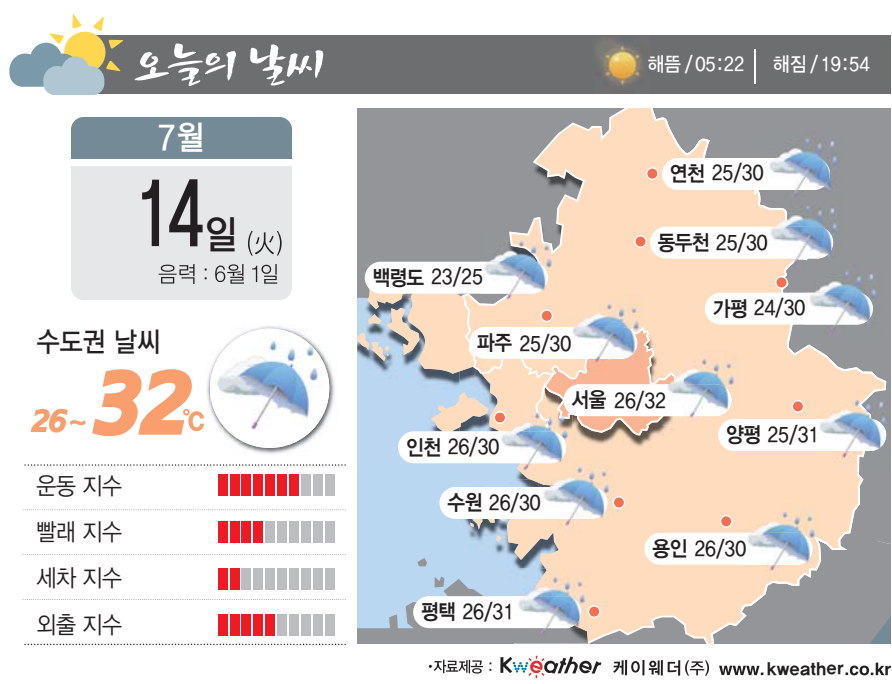
파주시는 지난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다. 공사는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사업비는 총 35억7000만원이다. 해당 사업은 2025년 경기도 관광지 및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예산은 도비 50%와 시비 50%로 투입된다.

손배찬 시장은 “스카이워크가 완공되면 임진각과 캠프그리브스를 찾는 관광객의 접근성과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며 “공사 기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동 약자를 포함한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임진각 평화곤돌라 스카이워크와 연계한 문화·관광 콘텐츠도 발굴할 계획이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美·中 갈등 속에도…美 패스트푸드 체인, 중국 시장 진출 가속 /사진 뉴시스
▲중국 북부도 태풍 ‘바비’ 영향권…라오닝성서 17만명 대피

▲태국 방콕 술집서 대형 화재…27명 사망·63명 부상
▲‘러 점령’ 우크라이나 지역서 전력·연료난 심각…생필품 가격도 덩달아 급등

▲中 6월 코로나19 확진 7만9000명…전월보다 5만7000명 증가, 사망 1명
▲“모즈타바의 변장?”…하메네이 장례식에 등장한 ‘검은 마스크’



치킨업계
빅모델 전면예
내수·해외 총력전
L1



Life

K-뷰티
생산·유통까지
수출 넘어 현지화
L2



기부 넘어 '경험' 선물... 게임 콘텐츠, 사회의 온기 되다



넥슨게임즈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인 환경·사회적책임· 지배구조 개선(ESG)은 이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 기업의 철학과 경쟁력을 보여주는 기준이 되고 있다. 게임회사는 어떤 시각으로 ESG에 접근하고 있을까.

넥슨게임즈는 그 답을 '게임회사다운 ESG'에서 찾았다. 단순히 기부금을 전달하거나 일회성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개발 경험과 지식재산권(IP), 인직원과 이용자의 참여를 사회적 가치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가장 잘하는 일을 사회와 연결하는 것'이 넥슨게임즈 ESG의 핵심 철학이다.

최근 기업들의 ESG는 '얼마를 기부했는가'보다 '기업의 전문성을 어떻게 사회와 연결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평가받는다. 넥슨게임즈 역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각각의 활동으로 나누기보다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SG는 임직원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했다
넥슨게임즈 ESG는 거창한 프로젝트보다 일상 속 실천에서 출발했다.

'2024년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진행한 '일상 속 탄소저감 저감 캠페인'은 불필요한 메일 삭제, 텀블러 사용, 장바구니 이용 등 생활 속 탄소저감 실천을 독려하는 프로그램이었다. 2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했고, 회사는 캠페인 인증 댓글 1건당 일정 금액을 적립해 환경재단에 총 500만 원을 기부했다. 환경 보호를 일상 속 행동으로 연결한 사례다.

같은 해에는 소아암·백혈병 어린이를 위한 헌혈증 기증 캠페인도 진행했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헌혈증 153장을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에 전달했고, 회사도 치료비 1000만 원을 함께 기부하며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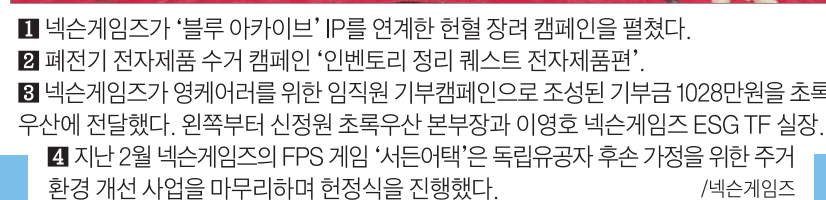
환경 실천도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인벤토리 정리 퀘스트: 전자제품 편'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들의 폐전기·전자제품 1.5톤 이상을 수거해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고, 자원순환 수익금을 초록우산에 기부했다. 사무실과 가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폐기물까지 ESG 실천으로 연결한 것이다.

넥슨게임즈 관계자는 "ESG는 특정 부서가 추진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임직원 모두가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며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사회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 IP도 사회공헌의 플랫폼이 되다

넥슨게임즈는 게임회사만이 할 수 있는 ESG에도 주목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블루 아카이브' IP를 활



1 넥슨게임즈가 '블루 아카이브' IP를 연계한 헌혈 장려 캠페인을 펼쳤다.
2 폐전기 전자제품 수거 캠페인 '인벤토리 정리 퀘스트 전자제품편'.
3 넥슨게임즈가 영케어를 위한 임직원 기부캠페인으로 조성된 기부금 1028만원을 초록우산에 전달했다. 왼쪽부터 신정원 초록우산 본부장과 이영호 넥슨게임즈 ESG TF 실장.
4 지난 2월 넥슨게임즈의 FPS 게임 '서든어택'은 독립유공자 후손 가정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마무리하며 헌정식을 진행했다. /넥슨게임즈

환경의 날 맞아 생활 속 탄소저감 실천
소아암 어린이에 헌혈증·치료비 기부
폐전자제품 재활용... 자원순환 앞장

굿즈 수익금으로 주거환경 개선활동
게임 IP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 눈길

영케어 지원사업 '위드영 프로젝트'
경제적 지원 정서 회복, 경험 기회까지
일일 명예사원 체험... 꿈·가능성 선물

용한 헌혈 장려 캠페인이다. 대한적십자사와 협업해 헌혈 참여 인증 이벤트와 오프라인 헌혈 독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재난구호 테마 굿즈를 제작해 판매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다. 개발진의 참여와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결합하면서 게임 IP가 사회적 가치를 만들 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올해 2월에는 '서든어택' 서비스 2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굿즈 판매 수익금 5200만 원을 한국해비타트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기부했다.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용되며 게임 이용자의 참여가 사회공헌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지난해에는 수원 장애인복지시설 '에벤에셀의집'에 자사 소유 토지를 기증하며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

에도 힘을 보탰다.

게임이 콘텐츠를 넘어 사회와 연결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들이다.

◆기부보다 오래 남는 것은 '경험'

넥슨게임즈 ESG를 대표하는 활동은 넥슨 재단, 초록우산과 함께 추진하는 영케어러 지원 사업 '위드영(With Young) 프로젝트'다.

영케어라는 장애나 질병, 고령 등의 이유로 가족을 돌보며 또래보다 일찍 돌봄의 책임을 떠안은 아동·청소년·청년이다. 넥슨게임즈는 이들에게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

회사는 프로젝트 시작과 함께 1억 원을 기부하고 초록우산과 함께 맞춤형 돌봄 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연말 기부 캠페인을 통해 1028만 원을 추가로 모아 영케어러들에게 연말 선물을 전달했다.

지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위드영 겨울방학 힐링캠프'를 열어 영케어러들이 판교 사옥에서 일일 명예사원이 되어 게임 개발과 사운드, 모션캡처 등을 직접 체험하도록 했다. 아트테라피와 레크리에이션, 놀이공원 체험 등 정서 회복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며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자신감을 회복하는 시간까지 마련했다.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영호 넥슨게임즈 ESG TF장은 "얼마를 지원했느냐보다 무엇을 남길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했다"며 "아이들에게 시간을 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회사에는 개발자뿐 아니라 기획, 아트, 사운드, 운영 등 다양한 직무가 있다"며 "아이들이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ESG는 '기업다움'에서 완성된다

넥슨게임즈 ESG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기업다움'이다.

환경 캠페인은 임직원의 일상을 바꾸고, 게임 IP는 이용자의 참여를 사회공헌으로 연결한다. 영케어러 지원은 게임 개발 경험을 통해 미래를 꿈꾸게 하고, 헌혈과 기부는 회사 안의 문화를 사회로 확장한다. 각각의 활동은 서로 다른 프로젝트처럼 보이지만 결국 '게임 회사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사회에 기여한다'는 하나의 철학으로 이어진다.

ESG는 더 이상 기부금 규모만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아니다. 기업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게임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콘텐츠다. 넥슨게임즈는 그 즐거움을 게임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았다. 게임을 만드는 경험과 사람, 이용자의 참여를 사회와 연결하며 ESG를 기업 문화로 확장하고 있다. 그것이 넥슨게임즈가 만들어가는 '게임회사다운 ESG'의 모습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체육공단, 유아·어린이 안전관리 우수 체육시설 모집...총 165개소 선정
▲K리그1 전북, 고등생 김예건과 정식 프로 계약...구단 최초 /사진 뉴스스

▲LG 제치고 '전반기 1위' 삼성, 후반기 선두 수성 나선다
▲'별들의 잔치'인데...MLB 올스타전에 오타니·저지 등 스타들 대거 불참

▲남자 주니어 핸드볼, 아시아선수권 위해 13일 중국 출국
▲"모두 웃는데 혼자만 침묵"...25세로 떠난 남아공 축구선수 모습 재조명